



저희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의뢰인들의 문제는 해결을 요구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의와 진리가 다를 수 있다는 상대적 기준과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당파적인 관점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없는 변치 않는 정의와 진리의 기준과 이해관계를 넘는 타당한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으로만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저희는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의 · 진리의 바른 길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상황을 질서와 채움과 밝음의 해결된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현장 실무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 진리와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약화된 노사관계를 회복 · 성장시키는 바른 길로 의뢰인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노사관계개선연구소

Telephone 02 2183 2700 www.ins-lab.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동관19층

돈이란 상상

손봉호 (대표주관)



이 세상에 “검은 것을 희게, 추한 것을 아름답게, 잘못을 옳은 것으로, 천한 것을 고상하게, 늙은이를 젊은 이로, 비겁한 자를 용사로”로 만드는 것이 있다 한다. 셰익스피어가 그의 희곡 『아테네의 타이몬』 (Timon of Athens)에서 타이몬의 입을 빌려 표현한 관찰이고, 마르크스가 그의 『국가경제와 철학』에서 긍정적으로 인용한 구절이다. 도무지 그런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돈이라 했다. 이미 셰익스피어 시대(17세기)와 마르크스 시대(19세기)에 돈이 그만큼 힘을 행사했다면 오늘날엔 그보다 수십 배나 더 큰 힘을 행사할 것이다. 그때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었던 것이 오늘날엔 살 수 있

게 되었고(건강, 미모, BMW), 그때는 돈 버는 수단이 아니었던 것이 오늘은 좋은 수단이 되었으며(야구, 얼굴) 과거에는 돈이 없어도 가능했던 것이 지금은 돈이 없으면 어렵게 되었고(대통령, 학위), 과거에는 돈이 있어도 어려웠던 것이 지금은 돈이 있으면 쉬워졌다(신분상승, 총회장). 미국이고 한국이고 훌륭한 대통령은 경제를 살려야 하고, 대학에서는 돈 버는데 도움이 되어야 인기학과다. 하늘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의와 사랑이고, 오늘날 땅의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돈과 쾌락이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힘이 있어야 의지하게 된다. 오늘날에는 돈보다 더 강한 것이 없고 따라서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게 되었다.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했던 것 같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하셨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신 것을 보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셨다. 그 때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었다면 오늘에는 그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 문화가 세속화 되어 초월적 세계와 가치는 무시되고 육체중심의 물질주의가 지배적인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다.

마치 같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돈도 그 자체가 악하거나 더럽지 않다고 말은 할 수 있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쓰는 돈은 매우 귀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에게 욕망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이 바로 쓰일 가능성보다는 잘못 쓰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돈에 대한 로크(John Locke)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심이 아무리 크더라도 돈이 없었더라면 부를 무한히 축적할 가능성이 없었고 따라서 빈부격차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며, 그 때문에 생겨난 온갖 문제들로 사회가 이렇게 갈등으로 가득차지 않았을 것이다.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딤후 6:10)라 했지만 이제는 ‘돈 그 자체’가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있다.

돈이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돈은 부패의 뿌리로 작용하고 있다. “모든 힘은 타락할 경향을 가지고 있다”(All power tends to corrupt)란 액튼의 경고에서 돈은 예외가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전형적인 예가 되고 있다. 가난한 교회보다 큰 교회에 사고가 많은 것도 큰 교회에 돈이 많아서 부패의 유혹이 더 크기 때문이다. 가난했더라면 존경받을 분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감옥에 앉아 있다.

성경에는 돈에 대한 경고가 매우 많고 돈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가룟 유다는 은30냥에 예수님을 팔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 때문에 거짓말하다가 죽었으며, 시몬은 돈으로 성령을 사려다 베드로로부터 혼쭐이 났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돈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파는 것에 대한 항의에서 비롯되었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부패도 대부분 돈과 관계되어 일어난다. 특히 한국인의 전형적인 세계관이 차세중심적이고 국민들 상당수가 돈에 미쳐있는데 한국 기독교가 이런 세계관을 극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에 깊이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복 받는 것이고, 연보를 많이 해야 좋은 교인이며, 현금이 많이 걸려야 성공한 교회로 인정받는 상황이다.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상당수는 실제로는 돈을 섬기면서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줄 착각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섬기는 우상은 의심할 여지없이 돈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딤후 6:10)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성경적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려면 돈의 위험을 직시하고 돈을 그 본래 위치로 돌려보내야 한다. 돈에 대한 태도가 바로 신앙의 순수성을 시험해 보는 시금석이다. 돈을 상대화하려면 종교개혁 때 성도들처럼 ‘세계내적 금욕’(Max Weber)을 실천해야 한다.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많이 내되, 철저히 절제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기본수요만 충족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나라에 주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 재물은 우리의 편의와 쾌락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중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눅 12:42) 주라고 주신 것이다.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므로 우리 자신의 사치와 쾌락에 쓰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범죄일 수밖에 없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Contents

WORLDVIEW · MARCH · 2014

WORLDVIEW

2014년 03월호 WORLDVIEW 통권 165호



표지인물
알빈 밴스트라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OVER STORY

06 선생님들의 선생, 교육을 묻다 _알빈 밴스트라(Alvin Bandstra)

SPECIAL

- 14 교회 회계의 투명성, 왜 중요한가? _조성표
- 17 한국교회의 회계 현황과 개선방안 _이천화
- 21 미국의 비영리법인 회계제도 및 투명성 보장제도 _박두준
- 25 깨끗한 교회재정의 실제적 적용 : 100주년 기념교회 _윤병환

COLUMN

- 02 대표주간 돈이란 무엇 _손봉호
- 30 깊이 들여다보는, 이슬람 읽기 3 이슬람의 믿음 _유해석
- 35 배낭메고 떠나는 세계관 운동 ForumC 및 Geloof & Wetenschap _최용준
- 38 공감의 하나님, 공감의 경제학 새로운 경제학 패러다임의 시도 : '공감의 경제학' _김태환
- 42 나의 믿음, 나의 신앙 고요한 기다림 _유재호
- 46 대중문화읽기 사람의 감성과 거룩한 상상력으로 역사를 움직이자 _추태화

CULTURE

62 유머 _손봉호

BOOK REVIEW

- 50 서평 파커 파머의 일과 창조의 영성 _박영주
- 54 서평 한국 교회 형성사 _이상규

NEWS

61 사무국 뉴스

※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대표주간 손봉호
발행인 김승욱
편집인 신호영
편집위원 김지원, 권태경, 박영주, 백승현, 송태현, 양성만, 이상무, 이우성, 장수영, 전요섭, 조영길
자문위원 신국원, 이상정, 조성표, 최현일
교정/교열 김선경
인턴기자 김소라
디자인 황정희
제작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인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화 02-754-8004
팩스 0303-0272-4967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https://www.facebook.com/cworldview)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
모바일매거진 m.worldview.or.kr



선생님들의 선생, 교육을 묻다

알빈 밴스트라(Alvin Bandstra)

“선생님들의 선생”

일명 Mr.B라 불리는 알빈 밴스트라(Alvin Bandstra)를 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CTC, Christian Thinking Center) 대표 유경상 실행위원이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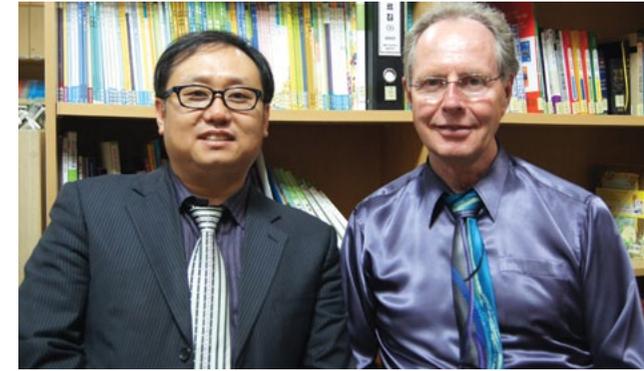
유경상 :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Mr. B : 제 이름은 Alvin Bandstra입니다만, 한국에서는 그냥 Mr. B라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아이오와의 펠라기독교초등학교(Pella Christian School)에서 43년간 교직생활을 했고, 개혁주의 교단(Reformed Church)에서 13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교직생활을 시작하고 15년 동안은 기독교 교육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사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 학부모들이 많은 돈을 내가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지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심지어 매일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무엇인가 큰 것이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부터 3년간 워싱턴주 시애틀 퍼시픽 대학(Seattle Pacific Univ.) 알버트 그린(Albert E. Greene) 박사로부터 기독교 교육에 대해 배우면서 저의 교직생활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기존의 모든 교육 과정을 새롭게 바꾸고, 수업들을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미국의 역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에 전념했습니다.

2007년에 샘물학교 교사들이 제가 교장으로 섬기고 있던 펠라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그린 박사를 만난 후 지속적으로 개발해 온 저의 교육과정과 가르침에 큰 관심과 호응을 보였습니다. 그 후 저는 샘물학교의 초대 교장을 받았고, 1년 뒤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샘물학교의 제안을 받았을 무렵, 저는 펠라학교에서 은퇴 준비를 하면서 교회에서는 1년간 안식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샘물학교에 와서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샘물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을 만난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자 즐거움입니다.



유경상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독교 교육이란 어떤 것인지, 나아가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이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r. B : 그것이 바로 제가 처음 15년간 교사생활을 하면서 씨름했던 문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박사를 통해 문제들을 발견하고 해결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교육 활동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역사 교육과정을 생각해 볼 때,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이건 개인의 삶이건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며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들이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역사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역시 역사교육에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형들의 악행을 이스라엘 백성 및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대비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암울

☞ 인터뷰어 유경상 (실행위원, CTC 대표), 통역 최제시카 (샘물학교 교사)



기독교사는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뼈와 근육을 가르치는 과학수업을 진행할 때 우리는 단지 뼈와 근육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사로서 뼈와 근육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뼈와 근육을 왜 만드셨는지,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고 끔찍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제가 가르치는 역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수업계획서를 작성하는 5단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개념(concept) 수립입니다. 기독교사는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뼈와 근육을 가르치는 과학수업을 진행할 때 우리는 단지 뼈와 근육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사로서 뼈와 근육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뼈와 근육을 왜 만드셨는지,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기독교 교육은 매우 강력한 것이 됩니다.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교사의 교육목표 설정입니다. 무엇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것은 교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과과정이기 때문에, 학교가 원하기 때문에 가르친다는 것은 적절한 답이 아닙니다.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으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학생의 학습목표 설정입니다. 교수법 이론에는 대개 아이들을 위한 학습목표가 제시되어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을 것이다.' 외에 '왜 이것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학습내용의 사실(fact)과 관련된 목표는 있으나, 의미(meaning)와 관련된 목표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키보드 자판에서 w키만 따로 분리해 놓고 '이것이 w키다.'라고 설명하는 식입니다. 세속적인 교육은 부분은 설명해도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사는 학습목표를 바로 설정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내용에 대한 사실뿐 아니라 의미와 목적까지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성경이 별도의 과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내용이 성경인지, 역사인지, 과학인지를 깨닫지 못해야 합니다. 모든 과목에 성경이 스며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역할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전략입니다. 특히 핵심적인 질문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역사수업이라면 '왜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날까?', '왜 예수님은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번영은 잘못된 것인가?' 등의 질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뼈와 근육에 대해서라면 '사람이 뼈와 근육을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죄가 우리의 뼈에 영향을 주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뼈나 근육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부활할 때 뼈와 근육을 갖고 있을까?' 등의 질문들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경상 : 언급하신 질문들이 기독교 세계관의 구성요소인 창조, 타락, 구속의 틀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Mr. B : 물론, 그렇습니다. 성경이 별도의 과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내용이 성경인지, 역사인지, 과학인지를 깨닫지 못해야 합니다. 모든 과목에 성경이 스며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역할입니다. 저는 그런 박사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을 배웠고 기독교 교육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과정 개발은 제법 오랜 역사를 지니게 되었지만,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연구해야 할 과제이자 숙제입니다.

물론, 기독교 세계관을 접목하기 쉽지 않은 과목들도 있습니다. 읽기, 쓰기, 문법, 수학 등 기능 위주의 수업은 기독교 세계관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간혹 '수학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가



르칠 것인가?' 하고 묻는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숫자를 사용하여 약속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숫자로 하는 작업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다른 과목들을 교육하기 위해 이 수학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평가입니다. 평가할 때는 앞서 했던 질문들을 재조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경상 :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교과목에 대한 책을 쓰신다면, 기독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Mr. B. : 현재 과학 관련 책을 준비하고 있고, 샘물학교출판사에서 출간할 예정입니다. 과학이 마무리되면 역사 관련 책도 집필할 계획입니다.



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교회가 아닌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교회는 학교를 지원하되 결코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권한은 교회나 교사보다, 근본적으로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학교들은 대부분 학부모들이 운영합니다. 교회는 학교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목회자는 설교를 책임집니다. 가정과 교회가 분리된 것처럼 학교 역시 교회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제가 있던 학교는 부모들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학교를 영어와 스페인어, 두 개의 과정으로 따로 운영하는 방안을 학부모들이 최종적으로 승인했습니다. 학교의 예산결정과 교사채용에도 부모들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정책결정의 권한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교회가 학교를 지원하되 부모들이 중심 축이 되어 운영하는 학교

유경상 : 선생님께서 한국에 오신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독교 교육의 근황을 보시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Mr. B. : 열정적인 교사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저에게 매우 큰 즐거움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사들 대부분은 참으로 헌신적입니다. 자신의 사명과 가치에 헌신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국 교사들은 너무 많은 업무와 잦은 회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이 언제 휴식하고 재충전하는지 궁금하고 걱정도 됩니다. 학급운영에서도 개선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을 훈육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교사들



들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유경상 :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준비된 부모들이 많아져야 할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기독교 교육을 훈련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Mr. B. :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부모교육에 대한 부분은 미국 기독교 학교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은 민감한 주제입니다. 부모들이 시간을 내기 어려워 교육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는 부모들이 기독교 교육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매주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샘물학교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유경상 : 앞으로의 계획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Mr. B. : 저는 교사들과 일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도록 도우려 하는데, 바라는 학교 회의가 일주일에 한 번, 가능하다면 한 달에 한 번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저는 앞으로 교사들을 학년별 소그룹으로 만나 개인적인 수업계획을 도우려 합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20년 후의 세상을 만드는 일이고 너무나 강력한 사명입니다. 저는 희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박사가 제 마음을 열어준 것처럼 교사들이 저의 도움에 힘입어 교사생활을 즐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은 교사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 다음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사무엘상 주석



“사사장士師政에서 왕정王政으로 전환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묘사하는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여러 신학적 문제를 던진다. 이스라엘에 인간 왕이 서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였는가? 아니면 인간의 완악함에 따른 불가피한 섭리였는가? 신정 사상과 인간 왕정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신정 체제에서 인간 왕의 역할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사울을 먼저 세움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왕정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는가? 사울은 왜 버림받았는가? 다윗은 어떻게 사울보다 영속적인 왕조를 이루었는가? 독자들은 사무엘상을 읽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신학적 문제들과 만나게 된다.” 서론에서

김구원 지음 _ A5변형 800면 안팎

김구원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
시카고 대학에서 고대근동학을 전공하고 활발한 저술과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 차세대 그리스도인 학자다.
사무엘상 본문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복상이 주목한 젊은 그리스도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차세대 학자가 쓴 우리의 주석서!

엘리와 사무엘을 거쳐 사울 왕조의 성립과 몰락에 이르는 사무엘상 이야기를 풍부한 시각 자료와 함께 읽는다.

평신도와 목회자를 아우르는 쉽고 알찬 내용!
성경공부와 통독에도 안성맞춤인 '신개념 주석서'



<http://www.hsbooks.com>

홍성사

WORLDVIEW SPECIAL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성경적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려면
돈의 위험을 직시하고
돈을 그 본래 위치로 돌려보내야 한다.
돈에 대한 태도가
바로 신앙의 순수성을 시험해보는 시금석이다.

교회 회계의 투명성, 왜 중요한가?
한국 교회의 회계 현황과 개선방안
미국의 비영리법인 회계제도 및 투명성 보장제도
깨끗한 교회재정의 실제적 적용 : 100주년 기념교회

교회 회계의 투명성, 왜 중요한가?

◎ 조성표 (동역회 실행위원장, 경북대 교수)

최근 우리나라의 국력이 부상하고 있는 추세다. 수출 규모가 세계 9위, GDP 규모는 10위권이며, 국가경쟁력도 20위권 안에 든 명실상부한 G20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투명성지수는 20위권이며, 회계적 투명성은 30위권 중반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낮은 회계적 투명성은 많은 비용을 유발한다. 2009년도 한국 기업의 자기자본 비용은 14.1%로서 일본 기업 6.2%와 미국기업 10.2%에 비해 매우 높다. 글로벌 회계법인인 PwC는 불투명지수가 1점 올라갈 때마다 자기자본비용이 0.22% 높아진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불리한 차이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투명성이 낮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루고 있는 것이다.

투명성이 낮으면 그 대가를 치루게 된다.

우리 교회의 투명성은 어떠한가? 교회에서 재정은 투명하게 집행, 공개되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는 아직 긍정적인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치러야 할 대가도 크다.

교회 내부의 분쟁은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처음에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놓고 논쟁을 벌인다. 그러다가 교회 재정을 낱알이 파헤치게 된다. 재정이 공개되면서 교회는 견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 헤어 나오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1. 어느 신실한 성도가 교회에 주택을 헌물하였다. 교회에서는 당장 그 주택을 이용할 계획이 없어 나중에 매각하여 다른 사역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잠시 목사님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해놓았는데, 이것이 횡령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 한 기독교학교 재단의 장이 공공 유용으로 구속되었다. 죄목은 돈이 없어서 교직원 봉급을 정부에서 나온 연구비로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정부 연구비는 당해 연구에만 사용해야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공금을 유용한 것이 된다.
3. 큰 교회에서 목사님께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드렸다. 목사님은 교회를 방문한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차비도 드리고, 선교지에 가서는 현지 선교사님들께 격려금도 드렸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나중에 교회에 분쟁이 발생하자 그 돈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평화로운 때는 무엇이든지 괜찮아 보인다. '아멘'으로 은혜롭게 지나갈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재정문제로 비화되고 결국 수습 불능의 상태가 된다. 이것이 회계적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교회가 치러야 하는 대가이다.

기업의 언어인 회계

교회는 영리기업만큼 회계정보의 중요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영리기업처럼 회계적 수치인 이익이 업적을 평가하는 지표도 아니다. 그러나 교회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의 사역에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위험한 대상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그렇기에 재정적 투명성은 모든 투명성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계(accounting)는 조직의 재무적인 거래나 사건을 화폐단위로 측정·분류·기록·분석하여, 이해관계자가 조직과 관련하여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정의된다. 기업에서 회계는 기업에 관련된 정보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전달하여 준다. 기업 경영에서 회계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그렇기에 회계를 기업의 언어(business language)라고 부른다.

교회 회계는 필요한 것인가?

그런데 교회회계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재무 활동을 계정별로 분류·기록·정리하여, 그 결과를 분석·검증·보고하는 것이다. 기업회계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기업의 수익잠재력을 평가하고 기간손익을 확정하여,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자본의 증가와 감소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물질적인 조직이 아니라 영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기업과 다르다. 교회회계는 교회의 활동을 물량적인 측면에서 관리하고 측정하여 보고함으로써 사역의 효과성과 건전성,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에 중심이 있다.

이에 권영도·남만기(교회회계, 대명, 2004)는 교회회계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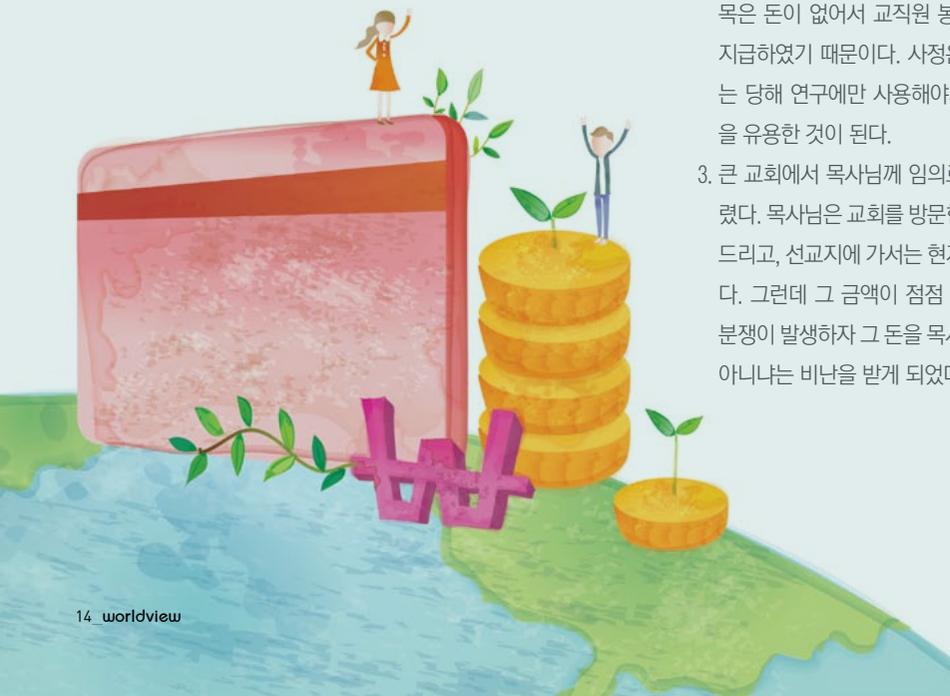
- ① 청지기 사명 실행 : 하나님의 소유된 재물에 대하여 신실하게 관리한다.
- ② 교회 사역의 기초 : 예산과 회계는 교회 사역의 계획과 결산의 기초가 된다.
- ③ 효율적인 교회사무 처리 : 낭비 없고, 효과적인 집행을 도모한다.
- ④ 전교인의 재무관리 참여 : 교회 운영에 대한 전 지체의 참여와 소통을 도모한다.
- ⑤ 역사적인 기록 : 교회에서 발생하는 재정 거래를 역사적으로 기록한다.
- ⑥ 교회의 신뢰성 제고 : 투명한 회계를 통하여 신뢰성을 제고한다.

교회회계에서 예산과 결산

교회회계는 기업과 달리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회계이며, 예산의 제약을 받는 예산회계라는 특징이 있다. 즉 연초에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집행하며, 이 예산에 근거하여 결산을 한다. 따라서 예산과 결산이 매우 중요한데, 예산과 결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자. 예산(Budget)이란 미래의 활동 계획을 화폐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예산 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교회의 비전 및 사역방침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역 따로, 예산 따르는 곤란하다. 또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참여예산편성이 중요하다. 부서별 사역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제출받아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함으로써, 사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부서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예산은 주일학교 학생수, 물가인상률 등 성과와 경제상황에 맞추어 편성되어야 하며, 모든 예산서와 결산서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예산 편성과정은 교회의 사역에 한정된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하고, 동기부여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산(Closing)이란, 회계연도별 교회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여 보고하는 것이다. 결산을 통하여 교회 예산의 집행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정



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미래의 합리적 재정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또 결산 심의를 통하여 수입 및 지출 예산 금액은 타당했는지, 예산 대비 수입의 과·부족 원인은 무엇인지, 명분이 없는 지출로 낭비된 사항은 없는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 합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 졌는지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차년도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된다. 교회도 회계감사를 두는 것이 좋다. 회계감사는 독립된 제3자를 공동의회에서 임명하며, 회계전문가가 감사의 직임을 맡아야 한다. 이러한 전문 감사자를 통해 교회는 부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성을 재고하며, 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다.

교회도 내부통제제도가 필요하다.

교회회계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내부통제제도이다. 현금에 부정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서 관리해야 한다. 교회에서 부정이 발생하면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사람까지 잃게 된다. 따라서 재정관리는 성숙한 사람이 맡아야 하며, 효율적인 내부통제조직을 구축하여 부정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내부통제조직의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현금에 대한 취급은 2인 이상 입회 하에 진행한다.
- ② 현금을 관리하는 출납업무와 장부를 기록하는 회계업무 담당자를 구분한다.
 - 출납기능: 현금에 대한 물리적 통제 (수납, 예입, 인출)
 - 회계기능: 현금에 관한 기장 및 전표관리
- ③ 모든 입금과 출금은 은행을 통하여 출납한다. 즉 수입은 당일 은행에 입금하며, 출금은 인터넷 또는 당좌수표를 통해 지급한다. 소액 사용은 소액현금제도를 운영한다.
- ④ 모든 현금거래는 공식적인 결재시스템을 통해 운영한다.
- ⑤ 현금 및 예금 잔액에 대하여는 주기적 또는 수시로 검증한다.
- ⑥ 금고 관리 등 물리적인 현금 관리에 유의한다.

⑦ 보유 기금 및 현금을 운용할 때는 적절한 수익성을 확보한다.

교회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영성을 바탕으로 합리성을 추구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교회 본연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회계기준과는 다른 교회회계기준이 필요한데, 국내 교단 중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가 유일하게 1999년에 교회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단위교회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실행이 교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사실, 교회는 다른 종교 시설들보다 투명성이 높은 편이다. 아직은 초보수준이긴 하나 업무가 분화되어 있고, 보고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대 사회와 교회 성도들은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각종 불순한 세력으로부터 교회와 목회자를 보호하려면, 높은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 앞에서 투명한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국교회의 회계 현황과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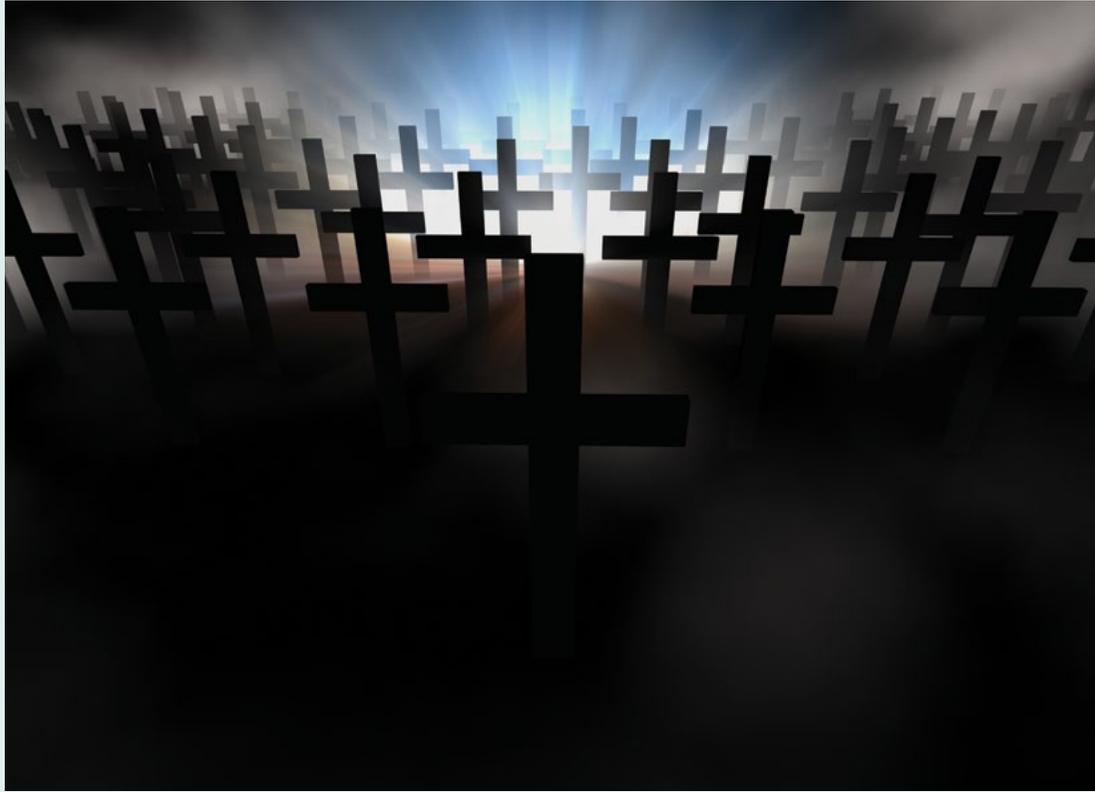
이천화 (가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얼마 전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실시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을 포함한 일반인들의 신뢰도는 5점 척도 기준 3점 이하이다. 3점은 신뢰하지도 않고 불신하지도 않는 수준인데 이보다 낮은 2.6 수준이라 한다. 지난 6년 동안 실시된 4회 측정 결과 모두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는 것을 보면, 문제는 심각하다.

한국교회가 봉사와 구제를 많이 함에도 신뢰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아서, 교회내부의 비리와 부패가 많아서, 교회회계시스템이 불투명해서 라고 한다. 이제 한국교회가 복음 전파와 영성 유지뿐 아니라 사회에서의 신뢰 회복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조성표 현재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이며, 본 동역회 실행위원장이자 대구 성덕교회 장로이다. 전공은 재무회계 및 연구개발회계로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련된 역서 및 저서로는 『돈걱정 없는 가정』(CUP), 『하나님이 가르쳐준 행복한 가정 생활』(이상규, 정동섭, 양은순 공저: CUP), 『하나님 돈을 어떻게 쓸까요?』(박정윤 공역: CUP), 『아직도 계속되는 꿈』(6인 공저: CUP), 『완전한 성공 1, 2』(11인 공역: CUP), 『공학회계』(명경사), 『비영리단체/비정부기구의 전략경영과 기금개발』(예영커뮤니케이션), 『일수록 행복해지는 돈의 비밀』(CUP), 『FRS 중급회계』(경문사), 『한국사회의 발전과 기독교』(10인 공저: 예영커뮤니케이션) 등이 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자료 “한국의 종교 현황”에 따르면, 천주교를 제외한 개신교 신도수는 8백 6십1만 6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8.3% 정도이다. 1명당 월 100,000원을 교회에 현금한다고 가정하면 월 8천6백억 원, 연 10조3천억 원이 된다. 2011년 기준 조세수입 중 내국세가 159조 규모 임을 감안하면, 이는 약 6.5% 정도로 적지 않은 비중이다.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이라면 회계적으로 투명하게 관리 및 보고되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일반적인 회계의 기능은 소유와 관리가 분리됨에 따라 소유주가 관리자에게 맡겨진 재산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수탁관리자로부터 보고를 받음으로써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또한 소유주를 포함한 정보이용자에게 회계실체의 경제적 현상을 화폐액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회계실체인 개별교회의 소유주 또는 정보이용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개별교회의 회계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받기 원하는 이해관계자는 어떤 개인과 조직이 있을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settled account with them)”,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이나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give an account of your management)”,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더라(I report according to my convictions)”는 말씀을 통해 회계의 기능과 필요성을 인정 하신 것 같다. 그럼 현금을 한 교인들은 어떠한가? 일단 교인들은 자신들이 현금한 재정은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 드러진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

리하거나 사용 내역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나아가 일일이 따지는 것을 죄악시하는 경향도 있다. 그리고 보고의 주체가 되는 교회의 당회장 또는 재정담당자는 재정 공개의 요구를 불신의 동기, 더 나아가 신성에 대한 도전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재정공개를 요청하기 어렵고 아예 포기하는 경향도 있다.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교회회계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기준이 일부 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일반화되거나 통일되지 않아서 계정과목이 각자의 편의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보여주는 예·결산 대비표 또는 수지계산서는 있으나,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보여주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작성되지 않는다. 이는 복식부기를 사용하지 않고 단식부기를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재산관리의 시스템이 약하거나 없다고 볼 수 있다. 예산회계를 사용한다고 하나 운영 측면에서도 예산회계의 실효성을 검증하기는 어렵다.

둘째, 운영 측면에서 당회장 또는 재정담당자 등 소수에 의해서만 관리되어 효과적으로 견제하거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관계당국인 정부나 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전체적인 재산상태나 운영내용을 보고하는 양식이나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 주요 이해관계자인 교인들의 교회회계에 대한 관심이다. 현금이 나의 재산이 아니라는 소유 개념을 넘어, 사용과 관리의 적합성 및 운영과 보고의 투명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회계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불신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지체로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다.

둘째, 운영 측면에 있어서도 소수가 재정을 관리하기 보다는 적절한 업무분담을 하여 승인자와 집행자를 분리, 최대한 현금거래를 줄이되 신용카드 사용 또는 은행거래를 통해 지출의 근거를 남기도록 한다.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 현금으로 현금을 하고 있어 보유한 현금을 지출하게 된다. 모든 현금수입은 은행에 전액 입금시킨 후, 사용토록 한다.

셋째,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최근 모든 사립학교는 규모와 상관없이 공인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그 재무현황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공익법인들도 재무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된다. 교회는 아직까지 재무현황 공개여부와 상관없이 기부금 공제 대상 단체로 인정받고 있지만 머지않아 재무현황을 공개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settled account with them\)”,](#)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이나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give an account of your management\)”,](#)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더라 \(I report according to my convictions\)”는 말씀을 통해 회계의 기능과 필요성을 인정하신 것 같다.](#)



넷째, 재정운영 기준과 보고양식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사업과 구제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업은 돈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구제는 댓가를 지불한 사람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다르다. 이런 시각에서 한국 교회는 재정지출을 대부분 누구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몇 %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몇 %의 구제를 하고 있는지 구분해 보고 싶다.

일반적인 교회재정 사용내역은 목회자 사례비, 직원 급여, 행정관리비, 임대료, 지급이자 또는 차입금 상환금 등으로 분류된다. 그 외에 행사비, 교육비, 선교비, 구제비 등이 있다.

만약 교회재정의 90%정도를 현금 하는 교인들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교회재정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사업자인가? 공익단체인가? 이러한 재정운영단체를 기부금 공제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을까? 댓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친목단체 또는 수익단체라 할 수 있다. 교회가 현금하는 교인들을 위해 건물을 짓고, 예배를 위해 좋은 악기와 전문음악가를 세우고,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들의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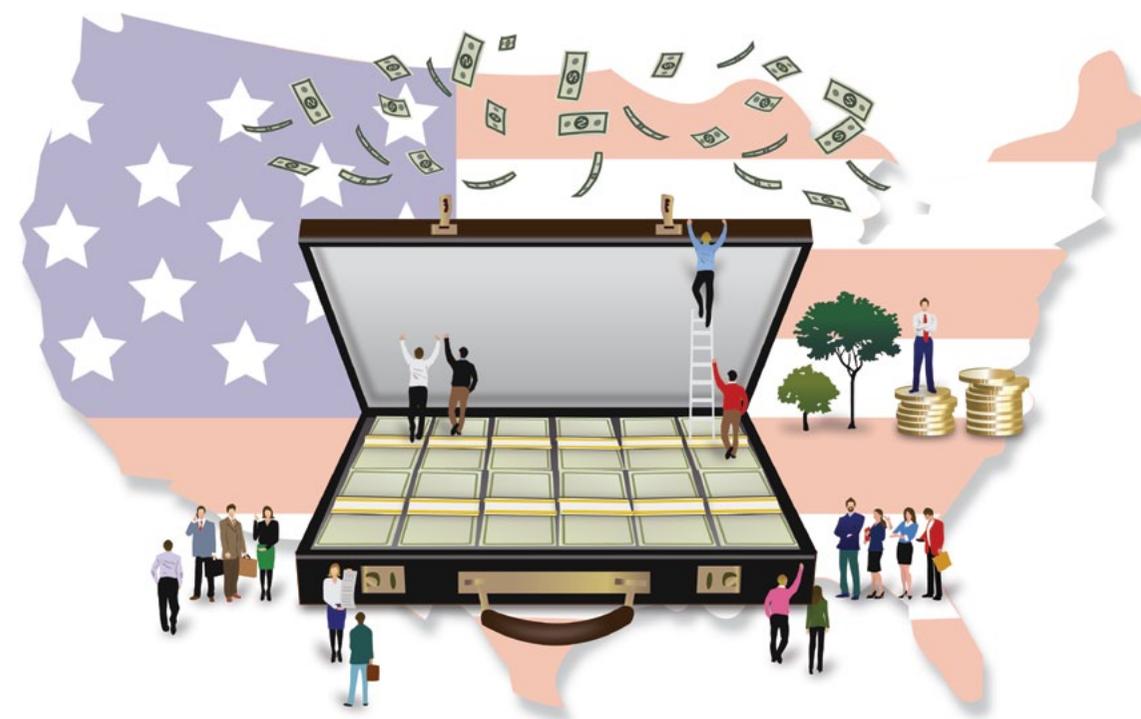
후를 위해 요양시설과 공원모지를 준비한다면 기부금 공제를 요청할 만큼 공익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적어도 50% 이상의 재정이 현금하지 않는 제3의 수혜자들을 위해 사용될 때 사회적 공익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개신교는 어느 단체보다도 적극적으로 사회봉사활동과 구제활동을 하고 있다. 각종 복지금, 구제금 조성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일반적인 평가는 부정적이다. 선행을 남이 모르게 하라는 불문율이 있지만 이제는 교회가 재정 관리에 있어서 폐쇄적이지 않다는 것을 사회에 알려야 한다.

이제 교회가 자발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사회가 강제적으로 요구하기 전에 교회 스스로 교회사역과 재정운영에 대하여 내부의 공유를 넘어 일반 사회에도 공개한다면 실추된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천화 가림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이며 미국, 한국 공인회계사이다. 경희대 경영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경희대, 숭실사이버대학 겸임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기독교경영연구원 부원장, 한국기독교실업인회, 신동아학원, 기아대책 및 이랜드 재단 감사이다.



미국의 비영리법인 회계제도 및 투명성 보장제도

◎ 박두준 (재)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지난해 여름 미(美)국세청은 한 비영리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교회와 종교단체의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소송 이유였다. 판사는 미(美)국세청의 교회 및 종교단체 관리에 대한 업무태만을 인정했다.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제도가 선진화되려면 일반대중, 비영리단체 관계자뿐 아니라 정부의 협력과 감독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정부와 기부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법인 회계제도와 규정에는 흔히 '선진화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그러나 위 사건과 같이 미국사회도 한국과 같이 종교단체에 대한 면세혜택 논란에 있어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러나 고무적인 것은 이미 미국에서는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들의 투명성과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2012년 미국 총기부금의 32%가 종교단체에 기부

매년 미국의 기부금 현황 보고서를 출판하는 <Giving USA> 2013년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미국의 총기부금 3,162억 3,000만 달러(348조원) 중 32%에 달하는 금액인 1,015억 4,000만 달러가 35만 개의 종교단체에 기부됐다. 이는 비영리단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이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교육분야(13%)보다도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기부금 현황만 보더라도 종교단체가 미국의 비영리단체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표 1. 미국의 기부현황

구분	1.종교	2.교육	3.휴먼서비스	4.재단기부	5.건강	6.공공	7.국제	기타
기부금(십억\$)	101.54	41.33	40.40	30.58	28.12	21.63	19.11	33.52
비율	32%	13%	13%	10%	9%	7%	6%	11%
원화(조원)	112조	45조	44조	34조	31조	24조	21조	37조

출처: <Giving USA> 2013

미국 교회, 면제혜택 마다하고 국세청에 자발적으로 등록

미국의 비영리법인이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면제단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은 설립한 달로부터 27개월 이내에 해당 양식을 제출하고, 테스트를 통해 사립재단 또는 공공자선재단으로 분류되어 면제단체 자격을 받게 된다.

반면 교회는 비영리법인 중 유일하게 위의 신고절차 없이 국세청으로부터 자동으로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많은 교회가 이러한 혜택을 마다하고, 다른 비영리법인과 똑같이 까다로운 신고절차와 면제단체 자격테스트를 거쳐 국세청에 면제단체로 자발적 등록을 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세청은 등록된 비영리법인 리스트를 대중에 공개하는데 대중들은 이 리스트를 통해 각 단체의 신뢰여부를 판단하고, 개인 기부금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가늠하기 때문이다.

교회도 미국세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기부금액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다 많은 대중에게 투명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이 기부자가 법인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면서 2003년 면제단체 신고서를 제출한 종교기관이 10만 개였던데 반해 2009년에는 30만 개로 세 배나 증가했다.

표 2. IRS 재단별 개인 기부금 공제율

Code	공익법인 유형	제한 공제율
PC	공공자선공익법인(a public charity)	50%
POF	사립운영재단(a private operating foundation)	50%
PF	사립공익법인(a private foundation)	30% (일반적으로)
GROUP	모회사와 자회사	경우에 따라 다름
LODGE	국내공제조직(a domestic fraternal society) 501(c) (8)(10)	30%
UNKWN	공공자선공익법인 자격이 종결되지 않은 공익법인	경우에 따라 다름
EO	공공자선공익법인과 사립공익법인을 제외한 IRS 170(c)에 속하는 공익법인	경우에 따라 다름
FED	연방정부에 속하는 공익법인	50%
FORGN	해외에 법인주소가 있는 공익법인(주로 국내에서 설립되었음)	경우에 따라 다름
SO	지원단체(Supporting Organization) 또는 기능적으로 지원단체와 통합된 단체	50%
SONFL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지원단체(Supporting Organization) 와 통합된 단체	50%
SOUNK	구분되지 않은 지원단체	50%

미국 종교단체의 면세자격과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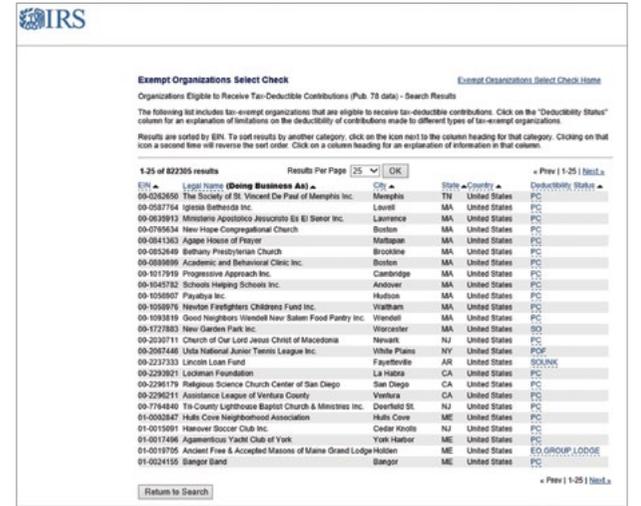
미국의 종교단체가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면세단체 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체는 종교 또는 자선의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순이익을 개인이나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해당 단체는 입법 활동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정치 캠페인에 연관되기도 안 된다.

일반적으로 연간수입이 2만 5,000달러를 넘는 미국의 비영리법인들은 미국세청에 매 회계연도 이후 5개월이 되는 달의 15일에 해당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연간 총수입이 10만 달러 미만이거나 회계연도 총자산이 25만 달러 미만인 단체는 약식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일반 종교단체도 동일한 신고의무가 있지만 교회, 지역단위 교회의 협력 단체, 종파연합에 의해 지원을 받고 해외에서 주로 자선활동을 하는 단체, 단순 종교 활동만을 하는 단체는 신고를 하지 않는다.

미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면제단체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수익사업에 관해서는 세금 징수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종교단체의 수익사업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회계연도의 총수익사업 수입이 1,000달러 이상인 종교단체는 반드시 양식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이후 5개월이 되는 달의 15일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사업이 자원봉사자에 의해 이뤄지거나 기부 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받을 수 있다.

단체 구성원의 편익을 위한 수익사업 또한 면세 대상이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주차장을 운영하여 교회직원, 교인 또는 방문자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면 이에 따른 수익은 면세대상이다. 그러나 일반인을 위한 수익사업은 과세대상이다.

참고. 미국세청이 제공하는 미국 면세단체 리스트(예시)



자료출처: 미국세청(IRS) 홈페이지, <http://apps.irs.gov/>

미국세청의 종교단체 관리

미국세청은 교회가 면세자격에 미달되거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포착됐을 경우, 해당 교회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감사가 해당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의회는 감사와 관련한 규정과 절차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회계감사 실시 사유를 해당 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교회가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기다린다. 해당 교회가 주어진 기간 안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명서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90일 안에 정부조사 또는 회계감사 실시를 통보한다. 일반적으로 회계감사는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2년 내에 마무리한다. 정부의 감사와 무관하게 교회와 종교단체를 포함한 모든 미국의 면세단체는 단체의 회계문서와 외부감사에 필요한 모든 기타 관련 서류를 일정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체의 수입과 지출(급여 포함)기록, 자산(투자자산 포함)의 취득과 처분 기록은 세무신고 후 4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미국은 국세청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면세혜택과 사후관리를 일원화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을 검증하고,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이 미국 비영리법인의 대표적인 투명성 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다.



성직자의 자발적 급여 공개와 세금 납부도 미국 종교단체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요인이다. 미국의 다른 면세단체들과 달리 교회에 소속된 성직자(정규직, 임시직 포함)는 급여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일부 성직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급여를 신고하고 있으며, 이때 교회는 반드시 미국세청에 급여와 원천징수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나가면서

미국은 국세청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면세혜택과 사후관리를 일원화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을 검증하고,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이 미국 비영리법인의 대표적인 투명성 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기부 투명성 제도를 2008년도에 제도화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2014년 1월 24일 입법 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자산 5억원 이상 수입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정부가 제시하는 표준공시양식에 따라 국세청 홈텍스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개정 예정인 표준공시양식이 적용되면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제도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회를 포함한 한국의 종교단체도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두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하고 2004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 상임이사를, 2008년부터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을 맡고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희망나눔나눔 정책네트워크 위원이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문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깨끗한 교회재정의 실제적 적용

-100주년기념교회-

☎ 윤병환 (100주년 기념교회 사무장)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기념교회’(이하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의국인선교사묘원(서울시 마포구 양화진길 46)과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추계로 235)의 법적 소유주인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재단’이 두 성지를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그리고 한국 기독교선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계승하고 선교 200년을 향한 비전을 함양하고자 2005년 7월 10일 창립한 교회로, 독립교단인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한독선연)에 소속되어 있으며 현재 서울시 마포구 양화진길 46(합정동)에 위치하고 있다.

1. 재정집행 및 보고 원칙(근거조항)

100주년기념교회 정관 제7조 2항에 보면 현금의 50%는 교회를 위해, 나머지 50%는 교회 밖을 위해 사용토록 (이재철 목사의 ‘새신자반’ p.293-295 참고) 재정집행의 대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담임목회자 소신 차원을 넘어 교회 창립정신의 하나로 정관에 공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교회 홈페이지 <http://100church.org> 교회소개>교회정관 참조)

이러 정관 제7조 3항에 따르면 재정보고 범위 및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바 매월 첫째 주일에 전월의 재정입출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교인에게 1원 단위까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매월 초 열리는 상임위원회(전임교역자 및 봉사팀장들로 구성된 의결기구로 일반교회의 당회 성격과 유사하나 차이가 있음)에 서면으로 상정한 후 의결을 거쳐 다음 주일에 각 교인들에게 인쇄 배포하고 있다. 아울러 교회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란에 상시 게재하여 누구나 열람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2005년 7월 창립 이래로 매월 공시해오고 있다.

2. 재정공개 이유와 목적

역대상 29장 14절(다윗의 기도문)은 다음과 같이 헌금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이다.'

재정공개는 기본취지는 광의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하나님과 교인들에게 보고 드린다는 마음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협의로는 모든 교인들이 교회 살림살이를 충분히 이해하여 헌금사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비본질적인 사항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추구해 나가야 할 본연의 길(道), 즉 각기 처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만 담대히 드러내며 살아가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 재정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절차

(1) 수입 : 헌금무기명주의

매주일 헌금을 집계하여 다음주일 주보 후면에 상품권 및 외화를 포함한 헌금상세내역을 1차 공개한 후, 다음달 초 통장별 잔액이 포함된 월 단위 결산보고서를 작성, 2차 공개한다. 아울러 개인별 헌금은 무기명을 원칙으로 하되 연말정산이 필요한 분들에 한해서 현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동일번호의 중복성 문제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등에 따라 교인등록번호 등 다른 대안을 강구 중에 있다.

(2) 지출 : 완전공개주의

공개대상으로는 교인들은 물론 외부의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공개함으로써 제한된 소수 내부감사자(현재 금감원 소속의 감사를 비롯하여 1명의 세무사와 2명의 공인회계사로 감사팀이 구성되어 있음)에 의한 감사의 한계성을 극복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있다.

세부 결재과정을 살펴보면 각 봉사팀장(현재 68개팀)이 지출결의서를 작성, 첫번째 결재란에 사인 후 사무국에 제출하면 사무장이 지출내용을 확인한 후 두번째 결재란에 사인하고 마지막으로 재정팀장이 최종 결재란에 사인하면 자금이 집행된다. 참고로 결재라인상에서 교역자는 일체 배제되는데 이는 재정에 관여하여 불필요한 구설수에 오를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말씀전달과 양육에 보다 집중토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상호 관련업무의 이해와 상황파악을 위해 담당교역자 및 선임교역자의 확인을 거치는 과정이 존재한다.

세부 지출기준을 보면 교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된 [재정운영에 관한 규정(2014.1.9. 2차 개정)]에 근거하여 단일거래 기준 200만원 이하의 지출은 자체 판단(필요시 담당교역자 의견 참고)하여 팀장 재량 하에 집행하고 200만원 초과 지출은 지출규모에 따라 품의서 작성과 상임위 승인 및 3곳 이상의 비교견적을 통한 계약 체결 등 객관적 투명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 참고로 100주년기념교회는 예산을 세우지 않는데 이는 천수답을 경작하는 농부처럼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어진 상황에 맞게 살아가겠다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또한 교역자, 직원 및 봉사팀장 등 교회 행정에 직접 관련된 이해관계자와의 금전적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상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임을 충분히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진다.

아울러 모든 거래는 부가세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관련 지출증빙서류 또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간이영수증은 법적 한도인 3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모든 교직원은 교회 창립 초기부터 근로자에 준하여 소득세를 자진 납부해 오고 있는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문제에도 다소 비켜서 있다. 그러나 엄격한 지출증빙 요구로 인해 다수의 비전문가로 이

루어진 선의의 봉사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어려움이 공존하고 있다. 아울러 인근 지역 영세상인들과의 거래가 어렵게 되어 지역민들과 동고동락해야 하는 교회의 또 다른 의무를 등한시할 우려도 상존하여 세법 등 국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준수사항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대응해 가고 있다.

자금운용은 안전성 우선의 원칙에 입각, 기초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위험자산에도 투자할 수 없는 바 제1금융권 내 확정된 정기예금 외에는 일절 다른 운용수단을 배제하고 있다.

(3) 회계감사 및 보고

매주일 단위로 감사팀이 통장거래내역과 지출결의서를 일일이 비교, 대조, 감사한 후 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월 결산보고서와 함께 상임위원회에 상정.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정관 제9조 2항) 분기별, 연도별 보고서도 별도로 전년 대비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상품권도 수입/지출내역서를 별도로 작성, 세부 사용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 주간단위 감사를 하는 이유는 혹여 발생할 수도 있는 회계 및 자금운용 실무자에 의한 금전사고 환경을 사전에 근절하는데 있다.

100주년기념교회는 일반교인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월 단위 결산보고서는 현금주의에 입각한 단식부기에 의해 작성하는 반면, 연말 결산재무제표는 자산운용현황과 손익현황 및 현금흐름 등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에 의해 작성하고 있다. 또한 연말결산 감사보고서는 계정과목별 마감을 기초로 작성된 감사조서를 토대로 작성, 보고한다.

4. 재정공개 의 장단점

(1) 장점

모든 정보를, 모든 교인에게, 모든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담임목회자 또는 재정담당자의 독단적 자금집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교인들의 헌금사용에 대한 이해 및 신뢰도를 높여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근절시키는 장점이 있다.

(2) 단점

너무 세부적인 정보까지 제공하다 보니 사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는데다 헌금 사용내역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교회행정에 대한 간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단, 불우이웃돕기나 선교사 신분이 노출되면 위험한 창의적 접근지역의 전도 등 상대방을 위한 비밀보장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명을 미기재하는 방법 등 부분적 대처방안으로 보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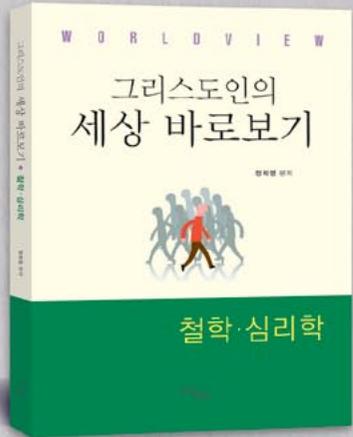
5. 맺음말

결산보고서의 완전공개를 통한 교회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담임목회자의 재정공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회계책임자의 선관주의 의무 이행 및 원천회계자료에 대한 최대한 가공 자제 등 몇 가지 지켜야 할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보다 자세한 결과들을 보기 원한다면 100주년기념교회 홈페이지에 접속, 안내 및 공지사항 코너를 둘러보면 된다. 교회정관, 주보, 월별 결산보고서, 분기별 보고서, 연말 결산보고서, 연도별보고서의 실제 내용을 가감 없이 들여다 볼 수 있다. 최근 자료로 [2013년도 100주년기념교회 연간결산 및 감사보고서]도 2013년 12월호 결산자료에 이어 게시되어 있어 100주년기념교회 재정보고의 현 수준을 누구나 쉽게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윤병환 현재 100주년기념교회 사무장으로 섬기고 있다. 광주에서 태어나 전남대 경영대와 서울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증권사, 투신사, 연금 등에서 애널리스트 및 펀드매니저로 활동하였다.

WORLDVIEW COLUMN



그리스도인의 세상 바로보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부모와 목회자, 교사들의 필독서!

철학·심리학 정희영 편저 | 11,000원



신학·역사학 권태경 편저 | 11,000원



정치학·경제학 강효식 편저 | 11,000원



사회학·윤리학 유경상 편저 | 11,000원



불교·유교 문태순 지음 | 11,000원

세계관은 문화를 낳는다. 더 나아가 어떤 세계관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문화의 열매는 달라진다.

“《그리스도인의 세상 바로보기》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세계관들을 기독교, 이슬람교, 세속적 인본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뉴에이지, 포스트모던주의로 나누었다. 그리고 학문의 각 영역에서 위의 세계관들이 각각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와 세계관에 따라 열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덧붙여 이 책에서는 유교, 불교의 세계관을 소개하기로 하였다. 우리 역사에서 천 수백 년 동안 민족의 전통사상이자 삶의 방식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해 온 불교와 유교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 기독교사의 이해와 기독교 세계관의 정립을 위해 꼭 해야 할 작업이다……” -서문 중에서



연재칼럼

깊이 들여다보는, 이슬람 읽기 03
이슬람의 믿음

배낭메고 떠나는 세계관 운동
ForumC 및 Geloof & Wetenschap

공감의 하나님, 공감의 경제학
새로운 경제학 패러다임의 시도 : ‘공감의 경제학’

나의 믿음, 나의 신앙
고요한 기다림

대중문화 읽기
사랑의 감성과 거룩한 상상력으로 역사를 움직이자

깊이 들여다보는. 이슬람 읽기 03 이슬람의 믿음

유해석 (FIM국제선교회 대표)

깊이 들여다 보는. 이슬람 읽기

- 01. 한국의 이슬람
- 02. 기독교와는 너무 다른
- 03. 이슬람의 믿음
- 04. 기독교에 들어온 이슬람

※ 이슈칼럼은 하나의 이슈에 대해 심도있게 4개월간 연재됩니다.



3년 전 한 여중생이 본회에서 주최하는 이슬람선교학교에 참석했다. 이슬람선교학교에 중학생이 참석한 경우는 처음이라서 이슬람에 대해 공부하려는 이유를 물었다. 그 학생으로부터 들은 대답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인데, 이슬람으로 개종한 담임선생님께서 매일 조퇴시간에 이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개종을 강요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인 저로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항의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약 80% 이상은 교회에 출석하던 기독교인들이었으며, 이들은 소위 'Back-Sliding Christian'으로 불린다. 이슬람은 그들의 믿음 아래서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종교이다. 그들의 교리는 종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행위의 근거가 되는 그들의 믿음은 무엇인가?

여섯 가지 믿음의 내용

1. 알라에 대한 믿음

이슬람에서 신(神)의 이름은 알라Allah이다. 무함마드에 의하여 이슬람이 시작되기 이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는 카바 신전이 있었다. 그 신전 안에는 360개의 우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알라는 달 신의 이름이었다. 이는 무함마드가 속한 쿠라이쉬 부족이 섬기는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이기도 했다. 카바 신전 안에는 알라의 딸들로 불리는 세 여신이 있었지만 무함마드는 이 알라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유대교처럼 유일신으로 정리하였다. 알라는 유일한 신이며 창조주이고 심판자이며 전능자이고 영원하며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다. 우리는 여기서 '알라'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God)이란 뜻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알라의 내재된 속성은 성경의 하나님과 다르다. 따라서 기독교의 하나님과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천사에 대한 믿음

이슬람에서의 천사는 알라가 창조한 영적인 존재들이다. 그들은 신성이 없고 권위도 없으며, 또한 사람을 위하여 알라에게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알라는 인간이 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간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사람을 창조한 첫째 날에 천사들은 이미 알라에 의하여 아담 앞에 굴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또한 이슬람의 천사들은 죄가 없고, 항상 사람들을 감싸고 있으며 사람의 좋은 행실과 나쁜 행실을 기록하는 역할을 한다. 또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 날 무덤 속에 찾아와 죽은 자의 신앙을 조사하는 두 천사가 있고, 여덟 천사가 알라의 보좌를 지키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서 천사와 사람 사이에 진Jinn이라는 존재가 있으며 이것은 좋은 진과 나쁜 진으로 나뉜다고 믿는다. 나쁜 진은 심판의 날에 유죄를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

3. 책에 대한 믿음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인류에게 104권의 거룩한 책을 주었다고 믿는다. 아담에게 10권, 셋에게 50권, 에녹에게 30권, 아브라함에게 10권, 모세에게는 율법책, 다윗에게는 시편, 예수님에게는 복음서를 주었으며, 무함마드에게는 꾸란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담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주었던 책은 모두 분실하였기 때문에 인간은 그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으며, 그 내용 중에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모두 꾸란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한다. 특별히 무슬림들은 현재 남아있는 네 권의 책을 귀하게 여기는데 토라(Taurat, 모세에게 준 책), 자브라(Zabra, 다윗에게 준 책), 인질(Injeel, 예수님에게 준 책), 그리고 꾸란(Quran, 무함마드에게 준 책)이 그것이다.

이슬람에 따르면 꾸란은 알라에게서 온 최종적인 계시로 인간에게 준 알라의 완성된 마지막 계시인 것이다. 이슬람 학자들은 성경의 구약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변질되었고 신약은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변질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꾸란은 성경의 부패를 바로잡고 알라에 대한 완전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주어졌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슬람에서는 꾸란에 있는 성경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은 성경이 변질되기 이전에 있던 내용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꾸란에서 꾸란 이전의 성경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4. 선지자에 대한 믿음

이슬람에 의하면 무함마드는 12만 4천 명의 선지자와 315명의 사도만이 알라에 의하여 보냄을 받았다고 한다. 특별히 6명의 선지자에게만 알라의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그들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이다. 꾸란에는 또한 25명의 선지자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그들은 알라의 유일하심과 인간에게 다가올 심판의 날을 경고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시리아의 무슬림 소녀〉 PHOTO BY 유해석

꾸란에 언급된 25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4명은 아랍인, 18명은 구약성경의 인물, 3명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사가라, 세레요한, 예수님이다. 사실 꾸란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신약성경보다도 꾸란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탁월성을 인정할 경우, 무함마드의 생애가 축소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5.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

꾸란은 세상의 마지막 날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고 믿는다. 심판은 꾸란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꾸란 전체 구절에서 14%나 차지하고 있다. 꾸란에 의하면 마지막 날 천사들이 증인이 되고, 진들은 책임을 묻기 위해서 불러질 것이라고 한다. 좋은 행위와 나쁜 행위는 저울에서 그 무게가 달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간이 심판을 받는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의 삶은 행위의 책에 기록되는데, 알라의 오른쪽 천사는 선행을 기록하고 알라의 왼쪽 천사는 악행을 기록한다. 이 책에는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한 모든 말과 행위들이 기록된다.

6. 속명에 대한 믿음

이슬람에서는 오직 알라만이 인간의 행위와 운명에 대한 유일한 결정권을 가진다. 이것은 일종의 속명론으로서 알라는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여타의 간섭을 불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속명론에 대해서 모든 무슬림이 확실하게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속명론을 확신하는 이들은 수니Sunni 무슬림인데, 속명론과 관련된 교리들은 이들에 의하여 훗날 추가된 것들이다. 이슬람의 다른 교파에서는 인간이 자기 행위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모든 종파를 초월하여 거의 모든 무슬림은 알라의 뜻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이 판에 새긴 것처럼 분명하게 결정되어 있다는데 동의한다. 실제로 꾸란에는 “알라가 원하는 대로”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한다. 그것은 인간의 선함과 악행도 전적으로 알라에게 달려있기에 인간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자유의지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다. 신제로 신실한 무슬림들은 인살라(알라의 뜻이라면) 라는 말을 항상 사용하면서 그들의 모호한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슬람의 믿음의 중심

1. 경전(Quran)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은 114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신약성경 정도의 분량이다. 꾸란은 천사 가브리엘이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내용이라고 한다. 무슬림들은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꾸란이 천국에 있는 꾸란과 완전히 똑같다고 믿고 있다. 그런 까닭에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꾸란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다. ‘꾸란’이라는 말은 ‘암송하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으며 무함마드가 알라로부터 23년 동안 받은 내용이다. 꾸란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다가올 심판 날에 대한 경고, 둘째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이고, 셋째는 무슬림의 삶에 대한 조항들로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꾸란은 무함마드가 살아 있을 때 완성된 것이 아니다. 무함마드가 생전에 받은 계시의 내용을 추종자들이 야자수 잎이나 동물의 뼈, 하얀 돌에 썼던 것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꾸란의 첫 번째 사본은 무함마드가 죽은 지 20년이 지나서 편찬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무함마드의 3대 후계자인 우스만이 자이드에게 꾸란의 수정을 요구했고, 그에게 직접 책임편집을 맡긴 후에 그 이전의 사본은 모두 불태웠다. 우스만은 이렇게 만든 새로운 사본을 각 도시로 보냈다. 그러나 이 사본도 역시 결함이 많아서 다듬고 개선해야 했다. 결국 이슬람이 시작된 지 1세기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현재 형태의 꾸란이 완성되었다. 무슬림들은



〈시내산 정상에 있는 모세기념교회〉 PHOTO BY 유해석



(이집트 카이로대학교 여대생들) PHOTO BY 유해석

꾸란을 '알라가 행한 기적'이라고 여기며 꾸란에 깊은 존경심을 갖는다. 그들은 손을 씻은 후에 꾸란을 만지고, 꾸란을 허리 아래 들지 않는다.

2. 전통(Hadith)

하디스는 무함마드의 언행록으로 무함마드가 생전에 말한 것들과 행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하디스를 순나(Sunnah, 관행)라고도 부르는데, 전체 무슬림 인구의 80%는 이 '순나'에서 유래된 순나 무슬림들이다. 무슬림들은 알라가 무함마드의 언어와 행동을 무슬림에게 모델로 주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디스를 꾸란에 이어서 제2의 경전으로 여긴다. 무함마드가 죽은 뒤에 2, 3대에 걸쳐서 많은 하디스가 있었다. 그러나 하디스는 구체적인 내용과 설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쳐서 여섯 개의 하디스만이 9세기에 인정되었다. 그 가운데 2개의 하디스가 가장 권위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그 저자는 알 부카리(A.D.870)와 알 무슬림(A.D.875)이다. 알 부카리는 수없이 많은 무함마드 언행록을 살살이 조사하여 20만 개를 모았는데 그 중에 7,300개만을 신뢰할만한 것으로 간주해서 하디스로 편집했다. 그리고 이슬람은 종파에 따라서 채택하는 하디스가 다른데, 시아파의 경우에 다른 하디스를 사용하고 있다.



유해석 충신대학교를 졸업. 영국 웨일즈대학교 신학부에서 공부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파송 선교사, OM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1990년부터 이집트 빈민가에서 사역하였으며 지금은 영국과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FIM국제선교회 대표로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역하고 있다. 충신대학교와 서울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였으며, 한국선교협의회(KWMA) 실행위원과 유럽코스타 강사 및 선교분과장, CTS 기독교 TV 특강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 '토마스 목사전, '만화 이슬람' 등이 있다.

제대로 된 메카 순례방법, 금지된 것과 허락된 것, 그리고 울고 그름에 대한 판결 등이었다. 이들은 또한 법을 신학으로부터 구분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이슬람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로써 이슬람의 각 교파마다 권위 있는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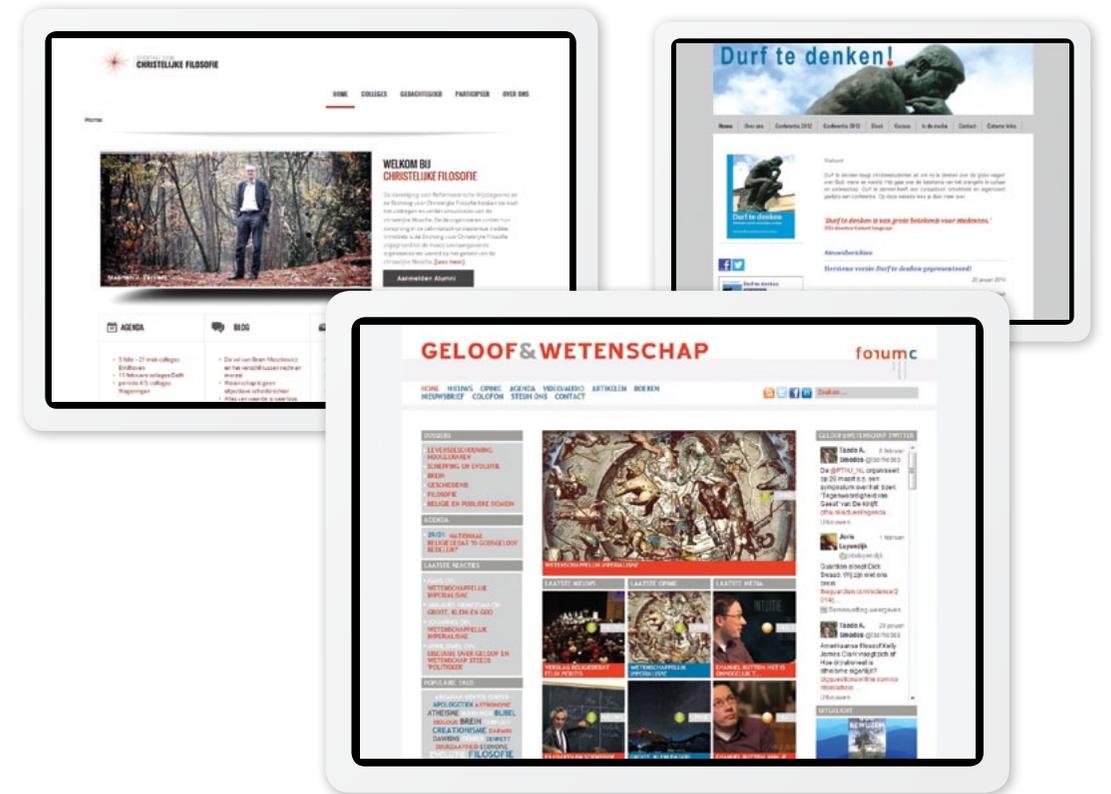
3. 이슬람 법(Sharia)

초기 무슬림 학자들은 신학보다 법학을 연구했다. 그들이 보기에 초기 꾸란과 하디스에는 신학적 요소와 법적 요소 사이에 구분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꾸란과 하디스를 해석해서 새로운 이슬람법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메카 순례방법, 금지된 것과 허락된 것, 그리고 울고 그름에 대한 판결 등이었다. 이들은 또한 법을 신학으로부터 구분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이슬람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로써 이슬람의 각 교파마다 권위 있는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샤리아 법도 이런 연구의 산물이다. 샤리아 법에는 다섯 개의 중요한 이슬람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공적으로 사람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의 의무이다. 이를 어길 경우에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까지 어기는 것이 된다. 공식적인 이슬람 국가는 샤리아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2014년 19번째 FIM 이슬람선교학교가 2014.3.13.-15. 매주 목요일 저녁 7:30-9:30(10주간) FIM선교센터에서 있습니다. 전화로 등록을 받습니다. (문의 1599-5591)

ForumC(forumc.nl) 및 Geloof & Wetenschap(www.geloofenwetenschap.nl)

최용준 (학회지(신앙과 학문)편집위원장, 한동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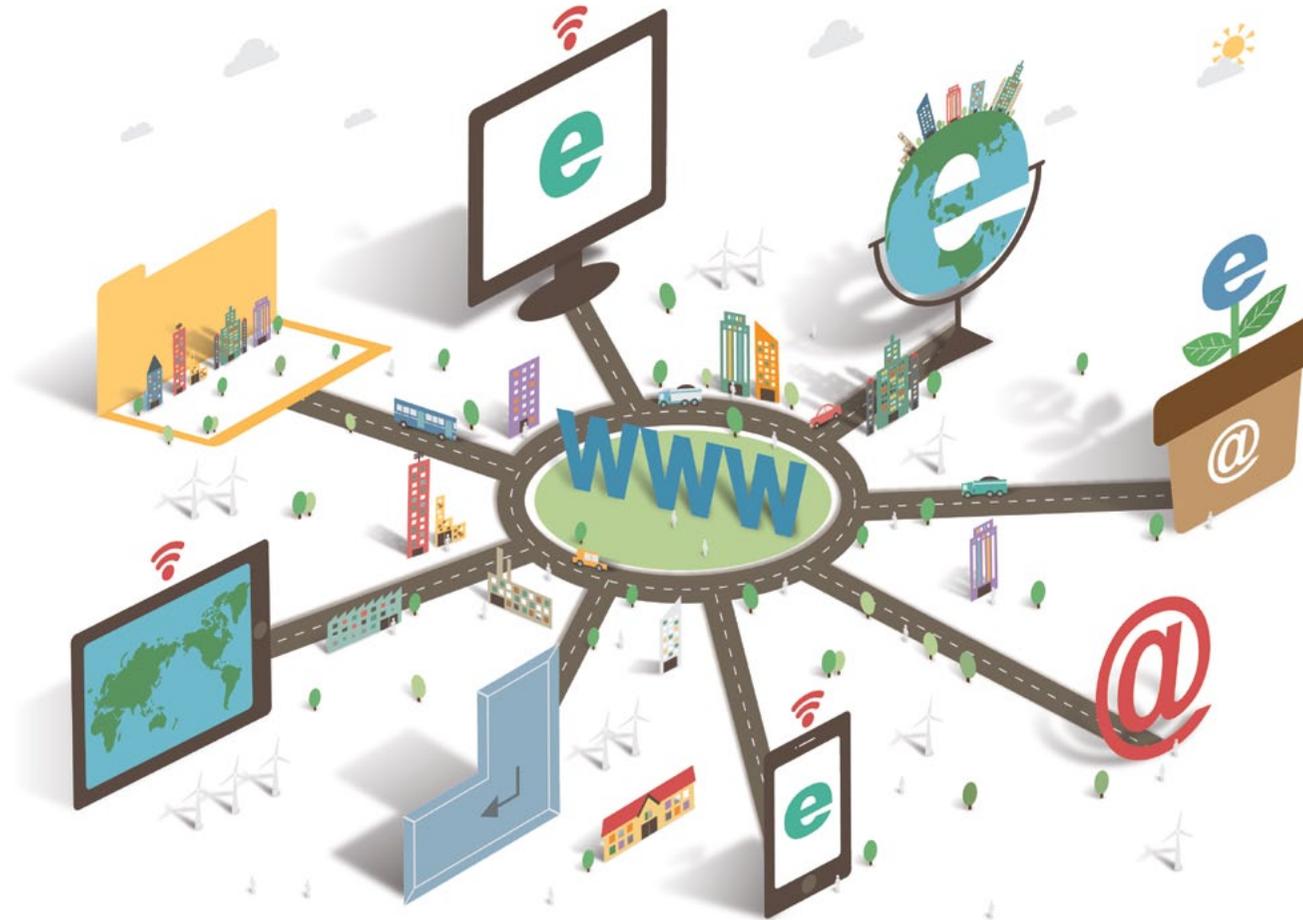
이 둘은 네덜란드의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세계관 사이트라 할 수 있다. 먼저 ForumC는 신앙, 학문, 사회에 대한 하나의 포럼으로 기독교 신앙을 학문과 사회의 중요한 질문들과 연결시키고 있다. 다양한 출판물들과 학술적 저널인 Radix를 발행하고 있으며, ForumC 토론회 및 심포지움들을 개최하여 각 학문 분야 기독교학자들의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추구하는 www.geloofenwetenschap.nl도 운영하고 있다.

ForumC는 기독교 신앙을 사회, 문화 및 삶의 다양한 질문들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열린 자세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과 사회 그리고 학문 분야에서 섬기며 두각을 나타내도록 공헌하고 있다. 이 단체가 다른 기관들과 구별되는 것은 반성과 토론을 통해 도출한 다양한 아이디어들로 기독교 서클 내외에 동일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영향력 있는 만남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ForumC는 성경을 신뢰할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 그 기초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살고 있고, 이 세계는 죄로 오염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구속되며 갱신됨을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고, 그분을 따르도록 부르신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신자들과 교제하며 함께 이 사회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분명히 제시하도록 도우신다. 이러한 기초 위에 기독 신앙적 전통 내외에 있는 모든 이들과 열린 관점에서 대화할 수 있다.

대표로 섬기고 있는 에포 브라운스 박사(Dr. Eppo Bruins)는 자연과학을 공부하여 1995년 우트레흐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MIT에서 연구한 후 현재 네덜란드 기술 연구소(STW) 소장 및 지역 교회 리더로 봉사하고 있다. 회계적으로는 빔 반 깡켈(Wim van Ginkel) 외에 이다 젝스트라(Ida Zetstra), 크리스 크루즈 교수(Chris Kruse), 아네커 드 볼프 박사(Anneke de Wolff) 등이 섬기고 있다. 그 외에 많은 자문위원들과 실행위원들이 있는데, 코스 피셔(Cors Visser) 소장, 알리 메이포겔(Alie Meyvogel) 비서, 플로리스 스프롱크(Floris Spronk) 프로젝트, 압 플립스(Ab Flipse) 편집 및 자문위원, 아넬루스 반 베이스텐(Anneloes van Beesten) 마케팅 및 홍보원, 엘리아스 드 브라운스(Elias de Bruijne) 행정원 등이 있다. 또, 소셜 미디어 및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프리조 레더(Friso Leder), 정기 간행 잡지 <과감한 생각 Durf te Denken>을 편집하는 디안느 놀른(Dianne Nolen)도 있다.

나아가 이 단체 내에는 기독 법률인, 국제협력, 기독 자연과학자, 예술인 등 다양한 소그룹 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기독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기획하여 실시하고 있다. (www.durftedenken.org 참조)



다음으로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추구하는 학자들의 활동인 www.geloofenwetenschap.nl에는 신앙과 학문에 관한 다양한 뉴스, 오피니언, 배경적인 정보 그리고 개인적인 간증 등도 포함되어 있다. 신앙과 학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힘으로 이 둘의 관계에 대한 논의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들의 관계는 갈등, 조화, 독립, 대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웹사이트는 신앙과 학문의 다양한 면들을 조망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앙과 학문의 관계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여 대화를 촉진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 사이트는 신앙의 여부와 관계없이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위의 두 웹사이트는 네덜란드에서 '학문과 종교의 대화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템플턴 세계 자선기금(Templeton World Charity Foundation)의 후원으로 제작되었다. 위의 두 웹사이트의 책임 편집인들은 아넬루스 반 베이스텐(Anneloes van Beesten), 압 플립스(Ab Flipse), 플로리스 스프롱크(Floris Spronk), 기타 자원봉사자들이다.

마지막으로 이 주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 철학협회(De Vereniging voor Reformatorische Wijsbegeerte & de Stichting voor Christelijke Filosofie: <http://www.christelijkefilosofie.nl>)이다. 이 단체는 우리 동역회의 <신앙과 학문>과 같은 기독교 철학 학술지인 <Philosophia Reformata>를 일년에 두 번 발행하고 있으며, <월드뷰>와 유사한 <Sophie>를 두 달에 한 번 발행하고 있다. 주소는 세 단체 모두 동일하게 Utrechtseweg 1A, 3811 NA Amersfoort, The Netherlands이며, Email은 전자는 info@forumc.nl, 후자는 info@christelijkefilosofie.nl이며, 전화는 전자는 +31 33 4647770, 후자는 +31 33 4328288이다. 비록 웹사이트가 네덜란드어로 되어 있지만 대화는 영어로 가능하므로 모쪼록 우리 동역회가 이 사이트들을 잘 활용하여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최용준 서울대(B.A),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M. Div.),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철학부(Drs.), 남아공 포체프스트롬(현 노스웨스트) 대 철학부(Ph.D)에서 수학하였다. 쾰른한빛교회, 브뤼셀한인교회 담임목사 역임. 한반도국제대학교대학원 교수 역임하였으며 현재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및 벨기에 북음신학대학원(ETF) 객원교수이자 한동대 글로벌에디슨학부 교수 및 학문과 신앙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새로운 경제학 패러다임의 시도 : '공감의 경제학'

김태황 (기독교학문연구회 부학회장, 명지대 교수)

공감의 하나님, 공감의 경제학

1. 새로운 경제학 패러다임의 시도 : '공감의 경제학'
2. 외로우신 하나님, 불통(不通)의 경제
3.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만들어야 하는 일자리



기존 경제학 패러다임의 흐름

경제학이 세련되게 보일지라도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것은 고작 약 240년에 불과하다. 철학과 문학에 비하면 신생아나 유치원생의 재롱에 비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은 인간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철학과 윤리학의 기반뿐 아니라 고도의 수학과 통계학을 활용하여 가장 엄밀한 사회과학으로 발전해 왔다. 대표적인 경제학 교과서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주제는 합리성, 효율성, 형평성, 효용(후생), 한계성, 기회비용, 경쟁, 균형, 생산성 등이다. 경제학은 시장의 기능을 중심으로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의사결정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유능한 경제정책 담당자의 현명한 판단보다는 무수히 많은 개인들과 기업들의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판단이 궁극적으로는 참여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18세기 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태동한 고전학파 경제학은 21세기 신고전학파 주류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합리성과 효율성의 시장경제 패러다임을 거대하게 쌓아 올려왔다. 반면에 노동의 가치보다는 자본의 가치가 우월적인 자본주의는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는 구조이며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주창한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학 패러다임은 시장경제를 대체하는 사회주의 국가경제를 지향해 왔다. 20세기 들어 케인즈는 경기 침체에 무기력해진 시장의 기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며 거시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열었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러시아 공산주의와 독일 전체주의를 경험한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은 시장과 국가(정부)를 초월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경제 패러다임을 추구했다. 20세기 말부터 확산되고 있는 행동 경제학은 경제적 행위에 대한 사회 심리학적 고찰을 접목시킴으로써 경제적 의사결정이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비합리적이고 편협하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사회과학으로써 객관성을 강조해 온 경제학이 제한적이고 주관적인 경제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학 패러다임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경제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논쟁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산업혁명 이후 대규모 기계화와 산업화의 시기, 공산주의 혁명의 시기, 대공황의 시기,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시기, 탈(脫)규범(포스트모더니즘)의 시기 등을 거치면서 경제학은 감탄할만한 이론적 고찰과 정책적 처방을 제시해 왔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발견했고,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정부의 재정 지출이나 통화량 조절을 확대하여 경기침체를 극복하기도 했고, 개인의 자유분방한 의사결정과 행동방식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서비스 공급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패러다임들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깊어지고 있는 저성장, 고실업, 과잉 공급(불균형의 심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할만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경제학이 사후적인 현실 분석에는 치밀해졌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를 마련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원지가 미국 금융기관이었다는 것은 충격이었다. 현대 경제학 이론과 정책이 가장 발달한 국가의 첨단 금융산업에서 자율적인 시장 조절 장치가 가장 허술하게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후 미국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금융산업도 구조가 조정되었지만 금융시장의 기능과 정부의 역할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다시 능청스럽게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경기 침체에 금융시장을 위축시키기도 어렵다. 정부가 자신있게 큰 소리치며 감독하기에는 금융기관의 덩치가 너무 커졌을 뿐만 아니라 몸놀림도 너무 빨라서 실질적으로 통제하기도 어렵다.

기독교 경제학의 새로운 관심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인간이다. 주인공의 역할이나 비중에는 견줄 바가 못되지만 주인공의 파트너가 된 인간도 덕분에 소중하고 품격 있는 존재로 대접받게 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인식에 기반한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교감하는 과정이 본질이다. 아담을 비롯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창조 섭리에 동참하게 된 것은 기독교 신앙과 학문 영역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상호관계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성령의 교통하심"(고전 13:13)은 이러한 상호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근본이 되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속되고 있음을 보증한다.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관계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서 발현되는 과정에 인간이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인간의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과 '공감'하고자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인간에게 알리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삼으시는 모험을 하시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일까? 문득 하나님도 외로우신 것이 아닐까 하는 다소 불경스러운(?) 생각이 든다.

이제까지 기독교 경제학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자원배분의 원리를 탐구하면서 섬김과 돌봄의 청지기적 경제활동을 강조해 왔다. 경쟁과 적자생존의 진화론적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에 대해 개인과 공동체 구원의 창조론적 나눔의 경제학을 주창해 왔다. 필자는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관계에 근거한 <공감의 경제학>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창 6:6)하기도 하셨고, 인간의 협상안을 수용하기도 하셨고(창 18:22-33), 진노하여 진멸하려고도 하시면서(출 32:10) 타락한 인간과의 창조와 회복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신 점은 기독교 경제학 탐구의 중요한 동인을 제공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종들(선지자)을 통해

개인 구원과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원을 이끄시는 과정에서 이 종들을 설득시키시고 마침내 소명감으로 스스로 행동하게 하시는 '공감의 원리'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바울의 이름을 개명하신 것은 이들에게 공감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으로 보인다.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 이후 열두 아들이 히위 족속 하물과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창 34:7-17)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방인과 공감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고 대학살과 약탈을 저지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공감하고자 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役事) 하시는 방식이라면 기독교 경제학도 이 방식에 근거하여 새로운 탐구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 공감의 경제학 탐색

새로운 경제학 패러다임을 탐색하기란 무지한 총동이거나 무모한 용기의 발로일 수도 있다. 이미 무수한 경제학 대가들이 경제사상의 지평을 아득하게 넓혔고 정교한 분석 체계를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경제학 나아가 기독교 학문은 하나님 앞에서 걸음마 단계에도 못 미칠 것이므로 호기심 가득한 탐색은 우리의 즐거움 특권이랄 수 있다.



<공감의 경제학>은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모델로 하여 공감의 프리즘으로 경제 현상과 활동을 살펴보고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사회 심리학자들에 의해 실험되어 온 인간의 합리적 행동에 대한 연구가 확장되어 21세기 들어 <행동 경제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개별 경제 주체가 항상 합리적이지는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비합리적인 판단이나 행동에도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논지가 초점이다. 즉 경제적 판단과 행동의 여건을 변화시키면 동일한 현상이나 사실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경제 주체의 선택은 달라지고 행위의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의 수익률이 떨어져서 근로자 개인의 분배 몫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면, 성과금 500만원을 삭감하는 경우보다 연봉을 500만원 삭감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은 불공평하다는 이의를 훨씬 강하게 제기한다. 수술 1개월 후 생존율 90%와 1개월 내 사망률 10%는 동일한 위험도를 나타내지만 사람들은 후자보다는 전자의 경우에 수술 받으려는 의사결정을 더 쉽게 내리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행동 경제학이 제시하는 경제적 판단과 행위의 부분적 비합리성 또는 합리성 이탈은 결국 주체와 객체 간 공감대 형성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공감을 형성하고자 하시는 바의 그림자를 따라, <공감의 경제학>은 다음과 같은 명제를 세우고자 한다. 첫째, 경제적 의사결정과 행위는 경제적 '관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경제적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형평성)의 판단이 상호관계의 유지와 회복보다 우선시하는 경제 질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사상, 문명, 산업의 발전은 참여 주체들의 경쟁적인 도전과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일방적인 정부 정책이나 독점적인 경제 행위가 단기적으로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참여 주체들 간 상호관계를 훼손시킬 것이다. 셋째,

경제적 행위의 도달점인 효율적인 균형은 참여 주체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감할 수 있는 근거는 경제 활동의 창조성, 타락성, 회복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넷째, 합리적(또는 비합리적) 판단과 행동은 '공감의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선택이다.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회복의 길로 나아갈 때 현실적으로 합리적 또는 비합리적 행동은 하나님과 공감하고 타인과 공감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려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수용될 수 있다. 다섯째,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과 행위는 '전략적 집단성'을 가진다. 비록 개인, 기업 또는 국가가 독자적인 의사결정과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과 결과는 집단성을 가지므로 전략적으로 공동체 의식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개인의 구원과 교회 공동체의 구원이 별개이지만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듯이, 개인주의적 경제 활동도 공동체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공감의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왜 경제가 동맥경화증에 시달리는지, 일자리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 자본과 금융의 흐름이 왜 문제가 되는지, 무엇을 위해 경제성장이 필요한지, 저축이 늘어나도 왜 투자는 늘어나지 않는지 등의 다양한 현안들을 <공감>의 프리즘을 통해 고민하고 탐구해 보려고 한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이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과 기독교학문연구회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명지대와 하와이 열방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크리스천최고경영자과정(C-LAMP)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

고요한 기다림

유재호 (사진작가)

오늘의 세상은 속도경쟁 속으로 빠진 것 같다. 모두 바쁘고 빠르게 살아간다.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주변을 돌아볼 여유만 있다면 참 많은 것을 새롭게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사진은 기다리는 도구인 것 같다. 오랜 시간 사물을 관찰하고 기다리다가 그 사물을 통해 느껴지는 순간을 한 장에 담아내어 시간을 정지시키는 것이 사진이 가진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도구의 이러한 특성을 생각하고 주변에 보이는 사물들을 기다림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촬영을 진행했다. 작업을 하면서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변화를 볼 수 있고 그 속의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멀리 낯선 곳으로 가야만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조용한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만 시간을 내서 산책하고 하늘을 한 번 더 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삶에 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비단 여유로움만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고요하게 기다린다는 것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위해 시간을 내야하는 것이기도 했다. 너무 바빠서 삶의 주변에서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다.(롬 1:20)

무심히 지나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시야를 달리해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드러나 보이는 것들도 있었다. 이렇게 변화된 시야를 가지고 주변 환경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사진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촬영을 해나갔다. 바쁘게 갈 길을 재촉하면 볼 수 없고 들리지 않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길가에 자라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그 속에 머무는 새 한 마리가 때로는 많은 말들을 건네 왔다.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계절을 느끼다보니 늘 보던 것들이 새롭게 다가왔고 그 속에 담겨진 의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의미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사진을 통한 묵상이 시작되었다.

묵상하듯이 촬영을 하면서 최종 결과물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고요함과 기다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백을 활용하던 조선시대 회화기법이 잘 맞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당시의 자료를 참고하게 되었다. 사진이라는 기술은 서양에서 들여온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조선의 회화적 감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수묵화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수묵화의



〈고요한 기다림〉 PHOTO BY 유재호



위부터 <출근길>, <폭포수와 반석>, <공중에 나는 새도 쉬어갈 곳 있어라> PHOTO BY 유재호

느낌으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조선 회화와 당시의 대표적인 화가들인 김홍도, 신윤복, 정선, 김정희, 조희룡 등의 작업을 참고하게 되었다. 선조들의 작업을 보면서 느낀 것은 여백은 정신을 담는 세계였다는 것과 사물들은 점과 선과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각의 프레임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 맞게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화적 표현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프레임 구성은 기존 것 대신 즉자형태로 정하였고, 수묵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흑백의 농담을 조정하면서 작업하게 되었다. 이렇게 촬영부터 결과물까지 과정을 다져가면서 작업을 진행해 나갔다.

이후 촬영은 대부분 생활 속에서 이루어졌다. 사진을 하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촬영을 위해서 많이 다니시겠네요"하는 말이다. 하지만 이 작업들은 촬영을 위해서 장소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장소에 있게 되어서 촬영한 것들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당시에 살던 아파트가 5층에 있었다. 눈이 소복히 쌓인 모습을 촬영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며 촬영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우산을 들고 출근을 하는 것이었다. 그 사람의 우산이 카메라로 들어왔다. 그렇게 한 컷, 두 컷을 촬영하였다. '출근길'(창 3:17-19)

왜 부모들은 아침이면 출근을 할까? 이유는 너무나 당연했다. 그런데 에덴동산에서 아담은 출근을 했을까? 성경을 보면 그도 일을 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였다. 아담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동산에 널려있었고 풍족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이마에 땀이 흐를 정도로 일을 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되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일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먹고 살려면 당연히 일을 해야지!"라고 들 하지만 일은 죄로 말미암은 것같았다. 일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죄로 인해 무한 제공되던 음식들이 끊어지고 일을 통해서만 음식을 얻을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이 명령은 지금까지 온 세상에 지켜지고 있고 알든지 모르든지 인간이라면 이 말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삶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제주도를 여행하게 되었다. 전에도 개인적으로 방문을 한 적이 있었지만 가족들과는 오랜만이었다. 제주도에서 유명하다는 정방폭포로 발걸음을 옮기고 아이들을 촬영하였다. 이윽고 고개를 돌려 폭포를 바라보았다. 거세게 내리치는 폭포의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그 밑에서 떨어지는 물의 압력을 견디고 있는 바위들을 보았다. 연이어 사진 촬영에 몰입했다. 폭포의 물보라에 젖은 카메라 렌즈를 거듭 닦아내며 물줄기와 바위를 담았다. 진경산수화를 생각하며 바위의 질감을 살려 최대한 농담을 표현하기 위해 애쓰며 노출과 셔터속도를 조정했다. '폭포수와 반석'(히 10:38,39) 거센 물줄기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세상의 거센 세파를 나는 거슬러 견디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력 없이 떠내려가고 있는가? 거센 물줄기를 말없이 맞으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위가 눈에 들어왔다. 신앙은 저런 것인가를 생각하며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나를 무너뜨리려는 간계들의 풍파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나는 과연 내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 그런 내 모습을 보며 내 뒤에서 오

는 자녀들에게 바른 지침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늦은 시간 아이들의 외가에 방문하게 되었다. 막 해가 지고 하늘은 아직 빛을 머금고 있었다. 새들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며 제 갈 길을 가고 한 무리는 전신 주에서 줄을 지어 쉬고 있었다. 새들의 움직임에 촬영하다가 나뭇가지 끝에 앉아있는 한 마리를 발견하였다. '잠시만 그대로 있어다오.' 마음속으로 부탁을 하면서 촬영을 해나갔다. '공중에 나는 새도 쉬어갈 곳 있어라.'(마 6:26) 새들도 자기 자리가 있고 날다 지치면 어딘가에서 쉬어갈 곳이 있는데 나는 왜 그리 많은 염려를 안고 살아왔던가. 새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는 왜 염려로 나 자신을 헤치고 있는지 내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염려가 아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넘어지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표시를 공중에 새겨 주셨다. 새를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늘 보면서 잊지 말라고.



<들풀> PHOTO BY 유재호

집 근처에 호수가 하나 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호수 주변은 풀들로 넘쳐났다. 조용히 호수를 거닐면서 이것저것 카메라에 담고 있을 무렵, 호수가 이전과는 달라 보였다. 호수의 정화를 위해 물을 조금 빼서 수위가 낮아진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뿌리가 수면 아래에 있던 것들이 물이 빠지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래로 내려가 지면에 빠짝누워 카메라를 하늘로 향하면서 풀들을 담았다. 풀의 모습을 더 많이 담기 위해서 광각렌즈를 사용하였다. 역동적인 모습들이 보이고 풀들이 자신을 뽐내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들풀'(마 6:30) 당당한 자태가 부러웠다. 들풀 하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뽐내는 것이 보기가 좋았다. 난초가 생각났다. 먹의 질은 부분부터 열은 부분까지 한 획에 모두 표현하며 곧게 뻗은 동시에 부드럽게 꺾이는 모습을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초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지면에 바짝 누웠다. 이 풀 한 포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풀은 어찌 그리 당당할까? 내가 힘을 가하면 곧 꺾여 버릴 존재인데 두려움 없이 어찌 저리 서 있을까를 생각하였다.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 나는 속으로 되뇌이며 풀이 가지고 있는 힘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강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자신감이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조용히 풀을 바라보며 촬영을 마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이제

는 그곳에 다시 물이 차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아마 내가 풀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은 다시 물이 빠지지 않는 한 그때가 마지막이 아닐까 싶다.

후 작업을 하고 제목을 붙이고 사진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속으로 되뇌인다.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을 작업을 보게 되는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에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삶이 되고, 삶이 사진에 나타나는 사진이 믿음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고요한 가운데 주님을 기다린다.



유재호 중앙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독일 Contemporary Art Ruhr (Essen, 독일)에서 그룹전을, 지난 2012년에는 밀알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그 외에 다수의 전시회를 하였다. 출판물로는 2007년 포토에세이 양화진 "Here am I"이 있다.

사랑의 감성과 거룩한 상상력으로 역사를 움직이자

추태화 (실행위원, 안양대학교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I. 미디어 만능시대

우리는 20세기를 지나면서 엄청난 기술의 발전을 목격했다. 기술은 생활의 편리에 기여하는 정도를 넘어 인간과 신의 존재를 규명하려는 자리에까지 올라왔다. 버튼 하나면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으니 과학이 도도해질 만도 하리라. 이로써 '인간'을 정의함에 있어 '호모 테크니쿠스(homo technicus)'라는 용어가 추가되었다. 더구나 정보기술까지 가세하여 미디어 만능시대로 접어들었으니 그 순간능과 역기능을 추론하기에는 머리가 빠근할 지경이다.

미디어는 인간의 실존 조건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사회인을 평가하는 관계지수(NQ, Network Quotient), 사회지수(SQ, Social Quotinet)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는데, 미디어와 관련지어 이해하자면 얼마나 사회와 긴밀하고 적절하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요점이다. 외톨이, 아웃사이더는 사회적으로 크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미디어 만능시대에 사회인을 측정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미디어 시대는 기호의 정글, 기호의 홍수를 가져왔다. 거대자본으로 무장한 미디어 콘체른(법률상으로 독립되어 있으나 경영상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기업결합)에서부터 개인의 사소한 일상이 소재가 되는 팟캐스

트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는 무궁무진하고 그 안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역시 광대하다. 홍수에 마실 물이 부족한 것처럼 그토록 많은 정보 중 과연 인간에게 유의한 정보는 얼마나 될까? 이기주의에 물든 정보는 또 다른 먹이를 찾아 미디어 네트워크를 방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신화창조는 순수성을 잃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 신화는 만들어지고 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신화가 아니라 조작되고 가공된 신화가 등장한다. 이른바 웰메이드(wellmade) 신화이다. 주식, 부동산, 다이어트 등 자본주의 시대에 창작된 신화가 원전을 꿰차고 들어앉은 형상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우려가 가시화된 것이다. 이런 시대일수록 '짜라시'가 판치게 된다. 거짓 소문이 세상을 움직이고 거짓이 진리를 성 밖으로 내쫓는 허위의 시대가 된 것이다. 성경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성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눅 4:29).

미디어 만능시대에 경악하게 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이른바 판옵티쿰(Pan Opticum), "전지전능하신 CCTV"가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권력자들은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정보를 조작하는 대중조작(Manipulation)을 할 수 있다. 반면 시민들은 항상 감시받고 통제당한다는 불안에 시달린다. 통치자들은 은밀히 시민들을 감시하면서 교묘하게 반(半)히스테리적인 증상을 조장하려 한다. 그래야 보다 통치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II. 도구적 이성의 종말

21세기의 미디어 왜곡 현상은 이미 1930년대에 경고된 바 있다. 독일 나치 권력이 등장하던 시대에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모인 일군의 학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헤겔 좌파 철학, 시민적 비판의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마르크제, 벤야민 등은 미디어와 대중문화의 은밀하고 위대한 결탁을 분석, 계몽주의적 이성(理性)이 한낱 욕망의 도구로 전락하는 비극을 간파하였다. 그로부터 80여 년이 지난 오

늘도 현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인간의 가능성으로 추앙받던 이성은 늙고 기운이 빠져 권태와 무기력에 빠져버렸다. 인간을 계몽·발전시킨 원동력이라 여겨지던 이성이 고령화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다. 대중문화는 창조성을 잃어버리고 복제에 복제를 거듭하여 문화적 가치를 상실한 소비재로 전락했다. 결국 대중문화와 그것의 종노릇하는 미디어로 인해 시대정신은 마비되고 시민적 비판의식은 점점 녹슬어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디어 통제 권력이 어떻게 사회를 비인간적으로 몰아가는지를 소설가 오웰(G. Orwell)은 극명하게 보여준다. <1984년>은 그런 의미에서 인류를 향한 경고이다. 어느 날 주인공은 자신의 사생활이 낱날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개인의 특성과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빅 브라더"는 주인공을 자신의 왕국에서 제거해 버린다. 주인공은 현대인들이 느끼는 소외를 미리 겪었던 것이다. 21세기의 시민들은 사회 여러 곳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참여대열에서 한발자국 물러서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이윤배반적인 미디어의 활약을 박수로 환영할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도구화된 이성은 현 시대에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기적 인간이 만들어낸 이기적 미디어는 드디어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슈퍼컴퓨터에 의해 사회나 국가가 통제되는 시대가 머지않은 듯하다. (최근 일어난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도구적 이성이 가져올 대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 정도면 종말적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영화 <폼페이>는 세계의 종말이 물의 심판으로 현실화 될 것을, <폼페이>는 베수비오 화산 폭발, 즉 불의 심판을 재구성하여 보여주고 있다. 인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진, 해일, 원전 폭발 등 대량 인명살상 현장을 목격했다. 종말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이다. 이렇게 이성이 무기력해 보이는 환경과 문화 속에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회복의 근거는 무엇일까.

III. 감성과 상상력을 다시 돌아보라
 그동안 전통으로 받아들여지던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오늘날의 리더십 현장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군주와 가신 간의 상명하달식 리더십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는 상생의 리더십, 협상의 리더십 등이 필요하며, 감성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등이 등장하였다. 이성과 감성이 인간에게서 분리할 수 없는 속성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감성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홀대를 받아왔는가. 그동안 감성은 이성보다 열등한 속성으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은 감성(Emotion)이야말로 인간의 삶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중 골먼(D. Goleman)은 감성지수(EQ, Emotional Quotient)를 정립한 학자로, 감성에 지능적 역할과 측정, 적용을 정리하여 <감성지능 Emotional Intelligence>이란 책을 펴냈다.
 감성은 개인의 성격을 넘어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무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분노라는 감정은 사람들이 권력의 억압에 별별 떨고 있을 때, 혁명의 불길을 솟구치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이집트, 리비아 등지에서 일어났던 혁명을 보면 알 수 있다.) 감정입은 또 얼마나 힘이 있는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비폭력 저항운동과 연설에 감동받은 이들이 함께했던 행진은 감성의 승리를 증언해준다.) 감성은 인간에 내재한 다양한 감정이 적절한 시기에 표출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촉매가 된다. 최근 개봉한 애니메이션 <겨울 왕국>은 감성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 그중에서도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감성이라는 것을, 이성과 논리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이 중요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른바 사랑 지수(LQ, Love Quotient)가 중요하다. 영화는 '진정한 사랑이 이긴다.'는 주제를 영상화하고 있다. 왕국을 차지하려는 이웃나라 왕자가 엘사를 살해하려는 장면에서, 인나는 운명을 던진다. 얼음으로 변해가면서도 언니 엘사를 위해 몸을 던진 것이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동생이 보인 진정한 사랑으로 인해 언니가 살게 되고, 해피엔딩을 맞게 된다.
 그러나 헐리우드식 사랑관은 한계가 있다. 인간적 사랑은 그 어떤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사랑이어야 하는가? 신적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사랑은 완성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IV. 사랑의 감성과 거룩한 상상력으로 역사를 움직이자
 테일러(M. Taylor)는 대중문화 현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대중문화는 구원을 기다리는 기호로 가득 차 있다." 대중문화의 역기능적 현상을 관찰하면 반인간적, 비인간적인 모습이 종종 눈에 띈다. 미디어의 폭력성, 선정성 등이 무분별하게 드러난다. 대중문화를 형성해가는 문화적 상상력은 이성의 도구화와 마찬가지로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즉, 도구화된 상상력이다.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 작

동하는 기능과 과정으로의 상상력인 것이다. 비좁고 뻣뻣한 담장에 갇혀 계란을 생산해내는 닭처럼 상상력도 혹사당하고 있다. 상상력(Imagination)을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야 되는 것은 물론 세례를 받아 기록해지도록 해야 한다. 세례받은 상상력(Baptized Imagination), 거룩한 상상력(Holy Imagination)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원동력이 된다. 이제 감성과 상상력을 기독교 세계관 운동, 기독교 문화 창조와 확산에 적극 활용해야 할 시기이다.
 예를 들자면 상상력은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동 성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시민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망각의 시간 속으로 문힐 뻔했던 사건은 영화 <도가니>를 통해 시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법제정까지 영향력을 끼쳤다. 상상력을 통한 공감대 형성(Sympathy)과 감정입입(Empathy)이 국회를 움직이게 한 것이다.
 여기서 생각을 좀 더 확장해 보자. 상상력은 국제 정치와도 무관하지 않다. 최근 동아시아 국제 관계가 심상치 않다. 한중일, 삼국 간에 국방을 앞세운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한 발자국만 더 움직여 봐라.' 하는 심정으로 가공할 스텔스를 띄우고, 온갖 미사일과 공격무기를 장착한 항공모함을 가동, 잠수함을 출격시킬 태세이다.
 이러한 대치현상은 이성이 앞섰기 때문이다. 외교문제를 이성으로만 설득시키려다 보니, 유엔 위원회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증폭되는 갈등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성의 정치학인 셈이다. 이기적 이성으로는 상생도, 평화공존도 있을 수 없다. 특히 우리는 일본과의 외교문제에 위안부 사과 문제, 독도 문제, 신사참배에까지 신경을 곤두세우며 대응하고 있다. 중국까지 가세하여 잘못을 지적하고 반성을 촉구해도 마이동풍이다. 감정의 끈이 깊어지고 있다. (필자는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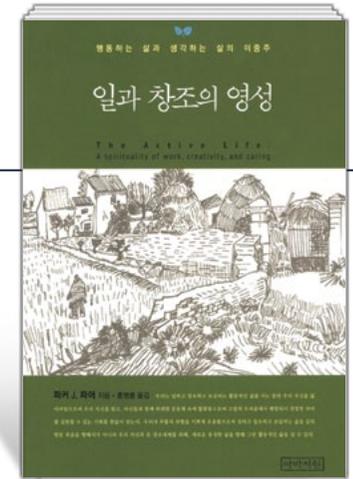
적으로 이런 상상을 해본다. '한중일, 세 나라가 유로존처럼 국경을 개방하고, 화폐를 단일화하고, 주거자유, 시장개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
 기독교인들은 "변혁"(Transformation)이라는 슬로건으로 사회 변화를 이뤄보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다양한 교단으로 분리된 개신교회의 부정적 모습이 미디어에 부각되고 비판받게 되면서 신뢰도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제 무엇으로 우리의 진심을 보여줄 것인가. 교리와 말로써는 더 이상 세상이 듣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사랑의 감성과 거룩한 상상력을 대안으로 제시해 본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짧은 성구 안에 핵심이 들어 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감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장대한 비전을 세우는 거룩한 상상력으로 세상을 끌어안는다면, 세상은 다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사랑의 감성으로 회복하게 되고, 거룩한 상상력으로 미래를 설계하게 될 것이다.
 쉐퍼(F. Schaeffer) 박사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제는 문화변증론으로 훈련된 청년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야 할 때이다." 그가 의미하는 문화변증론(Cultural Apologetics)이란 교리와 입으로만 표현되는 기독교가 아니라, 삶의 실제 부분으로 증거되는 복음의 능력이다. 다시 말해 삶과 문화로 증거되는 복음이야말로 감동과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문화, 기독교 미디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안을 제시하는 귀중한 어록이라 할 수 있다.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단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화, 철학, 사회학(M.A.)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을 공부했다(DR. PHIL.).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 (antelao@hanmail.net)

파커 파머의 일과 창조의 영성

◎ 박영주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분과장, 아신대 교수)



파커 J. 파머 저 | 홍병룡 역 | 아바서원

지난 연말, 서점에서 파커 J. 파머의 <일과 창조의 영성>이라는 신간을 발견했다. 평소 좋아하던 저자라서 잠시 집었다가 “어차피 나는 영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 길!” 한숨을 내쉬며 열어 보지도 않고 내려 놓았다. 서평 의뢰가 없었다면 이 책을 이렇게 다시 찾아 읽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된 파머의 모든 책들에 대한 열렬한 독자였던 내가 유독 이 책만은 지나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책 제목에 사용된 ‘영성’이란 단어가 주는 선입견인 듯하다. 전통적 유교 사회와 보수 기독교 문화 속에서 독신 여성으로 살아온 필자에게는 감추어진 열등감 혹은 자격지심이 있다. 천성이 외향적이고 무사태평이어서일까? 매사에 밝고 활발하게, 성취 지향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나름 긍정적이고 건전한 자아상을 발전시켜왔음에도, 늘 한편으로는 ‘나댄다’, ‘깊이가 없다’, ‘세속적’이라는 평가를 받을까 두려웠던 것 같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필자에게 회피하고 무시하는 전략이었다. 영성이라는 영역은 나와는 거리가 먼 다른 세계의 가치라 여기고 아예 발도 내디더 보지 않았던 것이다. 나에게 ‘영성’이라는 것은 일상과는 분리된 고요하고 범접하기 어려운 신성한 것으로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말이었다. 그래서 오랜만에 좋아하

는 작가의 신간을 대하는 반가움마저도 애써 외면하며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 보다.

그러나 나도 영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작은 소망이 이 책으로 나를 이끈 것 같다. <일과 창조의 영성>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은 활동적인 삶이 영성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었다. 세상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활동적인 사람들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탕진하듯 살아간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기도 하고,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극복하려고 발버둥 치기도 한다. 파머에 따르면, 정복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활동하는 동안 내면의 건강은 점차 악화된다. 어떤 이들은 현실 도피만이 내면의 질병에서 회복되는 길이라 믿으며 영적인(관조적인) 세계로 빠져든다. 많은 영성 서적들에서 행동의 세계는 예고와 권력의 영역으로, 관조의 세계는 빛과 은혜의 영역으로 분리하고 있다. 그래서 군중들의 심리는 외적 행동보다는 내적 활동, 소리보다는 침묵, 상호 작용보다는 고독, 활기보다는 평온을 따르려는 성향이 크다. 그런데 파머는 두 극단적 삶의 양식 사이에서 창조적 긴장을 유지하며 균형을 잡으라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조와 활동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님

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과, 온전성, 그리고 안녕을 잃지 않되 열린 마음으로 사람마다 서로 다른 소명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진정한 영적 탐구를 통해 우리는 ‘살아 있음의 환희’를 알게 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다. 파커 J. 파머는 이렇게 창조적 긴장을 유지하며 사는 활동적 삶의 세 가지 양상으로, 일, 창조, 보살핌을 소개한다. ‘일’은 외적인 필요나 요구 때문에 취하는 행위이며, ‘창조성’은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일이다. ‘일’이 우리가 세계에 묶여 있음을 보여준다면, ‘창조성’은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초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보살핌’은 이미 생명을 가진 어떤 것을 양육하고 보호하거나 치유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행위이다. 필자가 영성이라는 말 자체에 지레 겁을 먹고 물러섰듯, 사람들은 실패의 가능성이나 실패의 증거들을 무시하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물러나 고립을 자초할지 모른다. 파머는 열심히 일하고 창조하고 보살핌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와 시를 소개함으로써 행동과 관조가 통합된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한다. 그중 다음 두 이야기가 큰 울림으로 남는다.

파머는 3장에서 활동적인 삶이 어떻게 관조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지를 장자의 “활동적인 삶”이라는 역설적 산문시를 통해 설명한다. 2천년 전 인물인 장자는 휘몰아치듯 활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을 신랄하게 조롱한다. “이런 사람들은 다 대상의 세계에 갇힌 죄수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활동은 대부분 자유롭고 독립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작용(reaction)이라는 것이다. 누군가 “당신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가?”하고 질문한다면 필자를 포함한 수많은 현대인들이 과연 무엇이래 대답할지 궁금하다. 파머는 우리의 활동이 영혼 내부가 아니라 외부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능동적 삶이 아니라 반작용적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서 장자는 사람들이 반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일부러 찾는다고 비판한다. 장자의 산문시에 묘사되어 있는 이들은 자아를 특정한 행동들과 동일시한다. 또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에 자신의 생명력을 의존한다. “강한 남자는 들어 올릴 것을 찾는다. 용감한 여자는 용기를 보여주려고 비상상태를 찾는다.”

“

‘칼을 휘둘러 싸울 기회를 찾아 나서는 검객’,
박탈감을 조장하여 필요도 없는 것들을
소유하도록 하는 ‘광고’, ‘미덕을 보여줄
필요에 의해 선을 행하는 모습’ 등 모두 삶의
주체와 객체를 바꾸어 변질시키는 거짓
환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

전문가(professional)라 불리는 사람들은 뛰어난 능력, 높은 기준, 섬김의 윤리, 개인적 희생 등을 갖춘 존재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장자는 그런 그들을 비싼 값을 지불할 만큼의 능력을 개발하게 위해 긴 시간과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이라고 조롱조로 정의한다. 내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소비했던 시간과 돈, 그리고 젊음이라는 에너지를 쓸쓸하게 돌아보게 되는 대목이다. 문제들이 바닥나지 않도록 모든 전문직 단체의 회원들이 자리보존을 하려고 조용한 음모를 꾸민다. 어쭙잖은 전문 영역 하나로 교수라는 직책을 얻고, 살아남기 위해 교육지책들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

“바보들이 북적대는 시장이 없다면 장사는 어떻게 될까?”

마지막으로 장자의 산문시에서 지적하는 반작용의 삶은 사물의 본질을 어긋나게 할 뿐 아니라 자기 성취적인 거짓 신념으로 행동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거짓을 실존하게 하는 힘을 갖게 된다.

‘칼을 휘둘러 싸울 기회를 찾아 나서는 검객’, 박탈감을 조장하여 필요도 없는 것들을 소유하도록 하는 ‘광고’, ‘미덕을 보여줄 필요에 의해 선을 행하는 모습’ 등 모두 삶의 주체와 객체를 바꾸어 변질시키는 거짓 환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럼 우리의 활동적인 삶은 언제나 이렇게 부정적이고 어둡기만 할까? 파머가 제시하는 돌파구는 전문가(인생의 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본질적 의미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에 의하면 전문가는 본질적으로 신앙고백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크고 지혜로운 저변의 실재, 감춰진 온전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진정한 전문가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활동하고 만들어내는 삶의 영역들이 당초에 우리가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원 제작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완전한 자립이라는 환상을 포기하고 우리의 한계와 의존성을 인정하며 인생이 주는 선물을 고맙게 받으면, 희망찬 새로운 방식으로 제작자의 위치를 회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제조하지 않은 원재료를 선물로 받았고, 이 재료가 취할 수 있는 모양을 상상할 수 있는 자유도 선물도 받았다. 제작에 필요한 기술과 도구는 물론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제작 작업은 더 이상 절망의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분처럼 제작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령 받고 초대되었다(창 1:26-28). 그런데 문제는 그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거짓 환상을 좇느라 분주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활동적인 삶이란 원재료는 물론 일할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생명력이 넘치는 창조의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자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 가운데 사셨던 예수께 ‘활동적인 삶’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파머는 7장 “빵과 물고기: 결핍인가, 풍요인가?”에서 적극적인 활동 중 보여주신 예수님의 관조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극적인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주한 삶의 와중에 관조의 기회를 찾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관조와 행동을 마치 일과 휴가를 나누는 식으로 분리할 수 없었다. 예수와 제자들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일해야 할 때는 열정적으로 활동했다. 이 이야기 외에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활동적인 행동의 과정 중에 관조할 수 있도록 이끄셨는지 증언해준다.

파머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사람들을 붙잡히 여기 시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동정심은 행동의 성격을 반사적이 아닌 반응적으로 만든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군중들에게 풍성한 진리의 양식이 존재함을 가르치기 위해 행동하셨다. 예수님의 이러한 활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갖고 있는 것, 당장 쓸 수 있는 선물과 자원 속에서 풍요의 가능성을 바라보도록 이끌었다. 예수님께 관조란 홀로 조용히 있을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움직임으로 충만한 공공연한 사건이었다. 참된 관조란 그저 행동을 멈추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성육하는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파머는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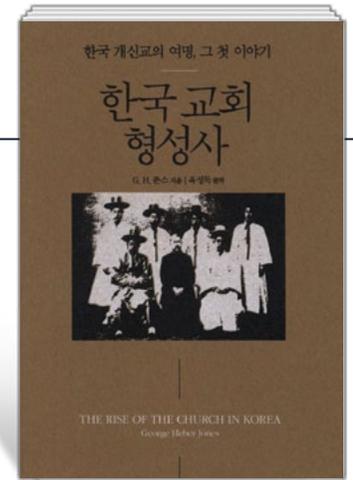
필자도 활동적인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도 현존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영적이지’ 못한 생활을 한다는 죄책감으로 위축되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고 싶다. 내 속에서 ‘활동적인 삶의 영성’을 향한 에너지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가 보다.



박영주 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 교수이다. 서울교육대학을 졸업하고 14년간 중앙기독교초등학교에서 교사와 교장으로 현장 경험을 하였으며, Philadelphia Biblical University에서 MS in Education, Columbia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기독교학교 리더십으로 Ed.D를 취득하였다. 기독교 세계관이 통합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사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며, 태국 및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 다문화 상황에서의 기독교 교육 실천을 통한 선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 교회 형성사

이상규 (고신대 교수 역사신학)



G. H. 존스 저 | 옥성득 번역 | 흥성사

『한국 교회 형성사』로 번역된 이 책을 접하고 우선 반가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한국어름 조원시(趙元時)로 널리 알려진 George Heber Jones(1867-1919) 선교사는 1888년 5월 내한하여 1909년 귀국하기까지 21년간 한국에서 일한 선교사인데, 그가 The Rise of the Church in Korea라는 책을 썼다는 점은 기록을 통해 알고 있었으나 이 책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자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책 원고는 뉴욕 컬럼비아대학교 유니언신학교의 버크도서관 고문서실에 잠자고 있었다. 약 한 세기가 지난 후 편역자의 헌신적인 수고의 값으로 이 책 원고가 발굴되고 편집, 번역되어 오늘의 독자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 책이 거듭나게(重生) 된 것은 편역자의 희생 때문이다.

비록 힘겨운 작업이지만 역사가가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희미하게 보이던 역사의 숲을 헤쳐가는 일은 연구자들에게는 신나는 일이다. 이런 책을 접할 때마다 19세기 독일의 로마사학자였던 니브르(Barthold Georg Niebuhr, 1776-1831)의 격사(激詞)가 생각난다. “역사가의 사명은 어두운 광맥을 파헤쳐가며 금광을 찾는 고투이다.” 이 사명에 충실하려는 편역자의 덕분으로 아무에게도 관심을 끌지 못한채 고문서관에서 잠자고 있던 새로운 문헌이 아담한 책으로 제작되어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니 이 어찌 반갑지 아니한가! 자칫 이 문헌이 이국의 하늘 아래

사장되거나 영원히 소실될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책의 발굴과 출판은 한국교회를 위한 값진 선물이라고 생각된다.

이 책은 전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책의 구성은 한국 혹은 한국교회에 대해 글을 남겼던 선교사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고 있다. 한국선교의 시작, 한국과 한국의 언어 역사 지리 종교 환경을 소개하는 점에서 그렇다.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여전히 미지의 나라로 인식되어 한국에서 기독교의 연원을 소개하기 전에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소개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런 접근이었다. 한국, 한국교회에 대해 글을 썼던 대부분의 서양 선교사들은 이런 방식을 추구했다. 존스도 이런 경향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는 않으나 존스의 기술은 다른이의 저술과는 좀 다른 점이 있었다. 그가 그린 한국 혹은 한국사회상, 곧 한국인과 한국의 역사 문화 종교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분석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한국의 제종교에 대한 이해가 그러하다. 존스의

이 책은 1917년에 완성한 원고인데, 이 책이 출판되기 이전에 나왔던 다니엘 기포의(Daniel Gifford)나 언더우드, 게일의 각종 문헌, 그리고 그 시기 주한 선교사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되던 그리피스(W. E. Griffis)의 ‘은자의 나라 조선’이나 이사벨라 비숍(Isabella Bishop) 여사의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혹은 조지 길모어(George Gilmore)의 ‘서울에서 본 조선’(Korea from its Capital) 등을 알고 있었고 이런 책을 참고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 선교지인 한국의 문화적 정황에 대한 기술은 1897년의 기포드의 ‘조선의 풍속과 선교’(Everyday Life in Korea; a Collection of Studies and Stories)나, 1908년에 출판된 언더우드의 ‘한국의 부름’(The Call of Korea) 만큼 장황하지 않지만 함축적이고, 스탠리 솔타우(Stanley Soltau)의 ‘은둔의 나라 한국과 기독교에 대한 반응’(Korea, The Hermit Nation and Its Response to Christianity)보다는 훨씬 분석적이다. 그는 단지 사실(fact)이나 정보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의 국토가 산악지대라는 특성이 주민의 성격이나 행동양식을 결정했고, 산지의 협곡이나 계곡은 씨족공동체 정신에 지역성을 심어주었고, 이런 점이 씨족 간의 격리, 낯선 사람에 대한 비우호적인 냉담한 성격을 조성했다고 지적한다.

또 종교문제에 있어서 기독교 전파 이전의 유교 불교 무교의 3대 종교가 종교적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어느 한 종교가 배타적으로 한국인의 종교가 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한다. 이 3대 종교는 중첩되어 상호 침투되어 한국인의 일종의 종교적 혼합체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은 이국인의 눈으로 평가한 옳바른 인식이었다. 일반적으로 게일을 비롯한 서양 선교사들은 한국의 주도적인 종교는 시대를 따라 바뀌었다고 보고 이것이 한국문화사의 특이성이라고 말해 왔다. 5세기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에는 중국의 고전적 종교인 유교, 불교, 도교 등이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지배적인 종교였고, 조선시대에는 송유배불(崇儒排佛)정책으로 유교가 그 시대문화를 지배하며 조선왕조의 쇠망과 함께 유교의 영향력도 쇠퇴하였다는 점을 말하며 존스는 3종교의 상호 의존성을 잘 지적하고 있다(62-63쪽, 그 이후). 그의 이런 지적, 곧 “이론적으로 한국인은 이 세 가지 종교의 분리된 특성을 인식했지만, 마음 안에서는 절망적으로 혼합되고 혼돈스러운 교리와 신앙의 덩어리가 혼란스럽고 소화되지 않은채 남아 있었다.”고 지적한다. 한국인들은 이 3가지 종교를 수용하면서도 부조화를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이런 점은 고대

헬라 로마사회와 같은 다종교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이었다. 가나안의 종교 현상도 동일했다. 종교자체가 흉(凶)과 화(禍)를 피하고 길(吉)과 복(福)을 추구하는 현세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물질적 부나 양재(禳災), 치병(治病) 등 기복적 성격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그 종교가 갖는 교의나 이념이 무엇이냐에 대한 관심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이 한국인에게도 나타난다고 지적한 것이다.

유교가 일상생활에 법과 질서를 소개했지만 도시화 혹은 근대산업주의의 복잡한 현실에 대한 윤리적 규범은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65쪽), 한국의 진보를 방해하고 정체사회로 만든 이유가 유교 때문이라는 해석은 김정일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보다 90년 앞선 성찰이다. 특히 샤머니즘에 대한 존스의 이해는 매우 포괄적이다. 무교에 성격과 구조에 대한 존스의 이해는 1992년 출간된 유동식의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의 선구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한국의 문화현실에 대한 존스의 이해는 함축적이면서도 분석적이고 따라서 그의 학구적 성격을 반영한다. 그는 21살의 나이로 내한한 최연소 선교사였으나 내한 이후 피 선교지 한국에 대한 깊은 성찰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흥미로운 부분은 제5장 '기독교와 한국토착종교의 접촉점'이다. 이 장은 존스의 한국종교 이해 혹은 타종교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데, 존스는 한국의 토착 혹은 기존종교는 기독교를 위한 준비로 간주할만한 접촉점이 있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피선교지의 토착종교가 복음전도의 전 이해 혹은 접촉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선교사(宣敎史)의 오랜 논쟁점이었다. 이미 1910년 에딘버러에서 모였던 국제선교대회(IMC)에서는 문화 인류학의 관점에서 타종교에 대한 관심을 구체적으로 표명했는데, 이 회의에서는 기독교와 타종교를 비교하면서, 기독교의 절대적 진리를 강조하면서도 타종교에 '소량의 진리'(Modicum of Truth)가 있음을 인정했다. 1928년 예루살렘에서 모인 선교대회는 타종교에 대해 보다 적극적 태도를 보

여주었는데, 이 회의에서는 타종교는 비록 기독교보다 열등하지만 타종교에도 진리가 있으며, 기독교는 타종교의 부족을 보완, 완성시켜 준다는 소위 '성취설'(fulfilment theory)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대회는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관계를 진리와 거짓으로 보다는 우월과 열등의 관계로 이해하고 타종교와의 대화를 촉구한 일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인식이 후일 종교다원주의 대두의 원인(遠因)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존 히크(John Hick)는 신적 실재(神的實在)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따라 각기 다른 종교로 발전해 왔다고 보고, 칸트의 '물자체'(noumenon)와 경험된 사물인 '현상'(phenomena)을 구별을 적용하여 신적 실재 자체는 똑같은 하나의 실재(noumenon)인데, 인간의 인식능력의 제한성 때문에 각각 다른 여러 현상, 곧 다른 종교로 표현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인식의 제한성 때문에 생겨난 것이므로 모든 종교에는 공통적인 '궁극적인 것'(the Ultimate) 또는 '실재하는 것'(the Real)이 있다고 보고, 종교 간의 차이를 모순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호 보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래서 히크는 세계의 종교들이 서로 대화와 교류를 통해 하나의 종교로 수렴되어 갈 것이라고 보아 성취설의 만개(晩開)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존스가 이런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의 종교의식, 혹은 종교사상에 존재하는 5가지 관념, 곧 하나님, 인간의 도덕적 책임, 예배, 기도, 영혼불멸 사상에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인식할 수 있는 접촉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견해는 기존 종교를 이방적인 것으로 보아 완전히 부정하던 입장과는 다른 것인데, 한국의 토착종교가 기독교를 위한 준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유사한 입장은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심심찮게 대두된 바 있다. 그 한 가지 경우가 뉴기니아의 사위족(Sawi) 선교사였던 돈 리차드슨(Don Richardson)인데, 그는 '화해케 하는 아이'(Peace Child),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Eternity in Their Heart) 등 여러 권의 저술을 남겼다. 후자의 책

에서 한국의 '하나님' 용어와 관념에서도 기독교의 여호와를 인식할 수 있는 내면의 뿌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런 점을 "구속적 유비의 원리"(the principle of redemptive analogy)라고 불렀다.

존스도 이와 같은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국토착종교에도 기독교와의 접촉점이 있다고 인식하여, 한국인의 신관념 예배 기도 습관에서 기독교 이해를 유추한다. 즉 한국의 토착종교는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보편적인 신앙을 주입시켜 왔다고 말한다(89쪽). 그러나 토착종교는 신적 존재를 인식하는 지점까지는 인도했으나 그 신에 대한 진리에는 무지했다는 것이다. 즉 토착종교가 기독교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불교나 유교는 한국인들에게 부분적으로 도덕규범을 인식하게 했는데 기독교는 여기서 진일보 하여 새로운 도덕적 발견을 가능하게 했고(97쪽), 토착종교에서 연원한 한국인의 예배 개념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사귄과 소통을 가능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존스는 한국의 토착종교의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착종교는 기독교로 인도될 수 있는 접촉점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존스는, "이 다섯가지 접촉점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황금마차를 타고 그들에게 온 사자들을 인식하도록 준비시켰다."고 말한다(107쪽). 이렇게 볼 때 존스에게는 오늘 신학계가 말하는 소위 '성취론'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존스의 어학선생이자 동역자였고 한국학을 안내했던 최병헌(崔炳憲, 1858-1927)의 영향이 아닌지 검토해 볼 만한 일이다. 실제로 종교에 대한 포용주의적 견해를 피력한 최초의 인물은 최병헌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점에서 그는 "한국 최초의 신학자" 혹은 "한국 최초의 비교종교학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최병헌은 한국의 전통 사

상을 기반으로 기독교를 해석하여 "종교의 진리는 천상천하에 하나이오 고왕금래에 들어 없는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타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모든 종교가 하나로 성취된 바가 그리스도 복음이며 기독교라고 이해하였다. 그의 '성산명경'(聖山明鏡)이나 '만종일련'(萬宗一籥)은 이런 점을 보여준다. 이런 그의 입장은 정경옥, 윤성범, 유동식, 변선환으로 이어지는 한국 감리교신학의 학맥으로 발전하였다.

한 가지 고려할 점은 번역자는 이 책을 '한국 최초의 통사'라고 불렀지만, 이 점은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1910년대까지 한국교회의 초기 30년의 선교역사를 기술했는데 이것을 통사로 보기에는 미흡하고, 또 통사로 본다면 이보다 앞서 1908년에 출판된 언더우드의 '한국의 부름'이 통사적 기록으로 존스의 경우보다 앞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존스의 기록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초기 한국교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문헌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편저자의 훌륭한 번역과 원본에는 없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첨기한 정교한 각주는 이 책의 가치를 높여준다. 이 책을 통해서도 옥성득 박사는 훌륭한 학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런 문헌을 발굴하고 재편집하고 번역하여 우리 손에 들려 준 번역자에게 칭찬과 함께(cum laude) 감사를 드린다.



이상규 현재 고신대학교 교수이다. 고신대학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을 거쳐 호주 빅토리아주 장로교신학대학, 호주신학대학에서 수학하였다. 고신대학교 기독교 사상연구소장, 신학과장, 교무처장, 신학대학장, 부총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연구이사, 개혁신학회 부회장 겸 편집위원장으로 있다. 쓴 책으로는 「교회개혁사」, 「교회개혁과 부흥운동」,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 「교양으로 읽는 역사」 등이 있다.

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기독교 계통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거나
캐나다에서 유학이나 안식년을 계획하십니까?



폴 스티브스 교수
'일터 신학' 강의



러스트호벤 교수 '의료윤리' 강의

지원 안내

1999년부터 캐나다 최고의 기독교대학인 Trinity Western 대학의 신학대학원인 ACTS(학장: Ken Radant 교수)에서 VIEW(원장: 양승훈 교수)가 개설하고 있는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MACS) 과정 및 기독교세계관 디플로마(DipCS)과정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MACS/DipCS 과정은 최고의 기독교세계관 및 기독교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 15년간 150여명의 졸업생과 350여명의 동문들(9학점 이상 이수)을 배출하였습니다.

모집분야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MACS-Worldview) 과정(54학점/2.5년) 기독교세계관 디플로마(DCS-Worldview) 과정(29학점/1.5년)
MACS/DCS 과정의 특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북미주신학교협의회(ATC)가 인정하는 TWU대학원의 정규 학위 과정입니다. 2 한국과 캐나다의 최고의 교수진들이 성경, 신학, 리더십, 세계관, 과학, 가정, 사회 등의 영역에서 성경적 조망을 가르칩니다. 3 신앙과 삶의 일치, 전공과 직업에 대한 성경적 조망 등, 삶에 직결된 내용을 강의합니다. 4 배우자는 Work Permit을 받아 일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졸업 후 Post-Graduate Work Permit을 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학사 이상 학력을 소지한 기독교 신자. 토플 점수 불필요
교수진	VIEW 전임교수, ACTS 교수진, 한국어 및 영어권 겸임교수진 20여명
원서마감	4월 1일(가을학기) / 전년도 8월 1일(봄학기)
문의처	worldview@twu.ca view.edu, acts.twu.ca 홈페이지 참고 TEL: 1-604-513-2121(교 3834,3838)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 1월 31일 마감)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3천 김성권 3천5백 가월현, 구재형, 권기웅, 김경현, 김경휘, 김민지, 김병재, 김영주, 김은호, 김태우, 김희원, 노주하, 박상희, 생명의강, 영음사, 이평준, 정세열, 정필규, 조성진, 지경순, 진성자, 최원길, 최희정, 하태실, 황귀희 5천 구성태, 권명중,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도희, 김미정, 김병국, 김성범, 김성은, 김성찬, 김영운, 김은경, 김정명, 김정원, 김정원, 김준중, 김재우, 김준, 김철수, 김태윤, 김항아, 김혜창, 노승욱, 박승룡, 박진희, 박찬규, 배기선,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신기혁, 신찬웅, 심정하, 양혜영, 우수민, 유은자, 유종열, 윤경숙, 윤종선,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명진, 이민화, 이승환, 이윤희, 이향숙, 임선재, 임형준, 장현일, 전정진, 전충국, 정범채, 정봉현, 조은아, 조인진, 조혜경, 최광수, 최희희, 최영태, 한배신, 허재일, 홍승기 7천5백 고상성, 김영숙, 김은미, 김효태, 민수진, 박현빈, 방선기, 영암교회, 이병주, 이상훈, 이은수, 이주희,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은정, 강호영, 강효식, 고선욱, 고재호, 고현경, 구준희, 권경호, 권민규, 권순범, 갈원평, 김경숙, 김경식, 김경식, 김경원, 김경화, 김경희, 김고운, 김광순,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남진, 김동우, 김동준, 김막미, 김범식, 김보경, 김상범, 김성경, 김성민, 김성은, 김성인, 김세령, 김세중, 김수홍, 김승남, 김영남, 김영완, 김요한, 김용석, 김우신, 김원호, 김윤권, 김은덕, 김은정, 김은혜, 김재정, 김정모, 김정일, 김정호, 김중국, 김준희, 김중훈, 김진성, 김진아, 김판임, 김혁, 김현경, 김형길, 김형수, 김홍성, 김홍제, 김효숙, 나동훈, 나윤숙, 남서희, 류현우, 마민호, 박기연, 박능안, 박동현, 박두한, 박성인, 박시운, 박종원, 박준모, 박준영, 박진규, 박창규, 박창우, 박한배, 박해일, 박현경, 박희주, 배지연, 백경은, 백현준, 빛과소금교회, 서유미, 서화진, 성광원, 소중화, 손현탁, 송미정, 송중철, 송철호, 신상형, 신성자, 신진선, 신현주, 신형규, 신호기, 안병열, 안석, 안영혁, 안용준, 양행모, 오지순, 원선희, 유건호, 유경성, 유경숙, 유동준, 유상원, 유영준, 유은희, 유지황, 유창은, 유해규, 유화원, 유희진, 윤상현, 윤천석, 이강, 이경숙, 이계신, 이권철, 이규현, 이기훈, 이길형, 이대규, 이명동, 이명숙, 이명현, 이문원, 이상수, 이상환, 이상수, 이상수, 이시영, 이언구, 이윤규, 이원배, 이윤재, 이은자, 이은주, 이은혜, 이장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수, 이종국, 이준석, 이지숙, 이지연, 이진영, 이화성, 이해리, 이호선, 이환일, 임동진, 임수연, 임영, 임일택, 장승재, 장영창, 장옥경, 장유진, 장인숙, 장태준, 전동일, 전명희, 전성규, 전장원, 전종화, 정경미, 정경식, 정동섭, 정상록, 정용수, 정은희, 정정숙, 정진우, 정현주, 제양규, 조미연, 조백형, 조승희, 조용현, 조은향, 조재천, 조현용, 조혜신, 주경식, 차병준, 차유림, 차정규, 최삼열, 최세진, 최윤영, 최익수, 최진호, 최한빈, 최현식, 최효영, 추진연, 태영숙, 하진호, 한진영, 한혜실, 한화희, 함부영, 하찬영, 허 현, 현승건, 현하나, 홍선호, 홍정석, 홍준호, 황규영, 황도웅, 황세환, 황태연, 황해숙, 황해정 1만5백 김찬호 1만5천 김선화, 김효숙, 정상선, 최승원 2만 강대훈, 강용란, 김세광, 김용식, 김인숙, 김정호, 노용환, 문석윤, 박성민, 배은경, 변우진, 옥재호, 우시정, 이기건, 이명희, 이인아, 임춘택, 전광학, 정문선, 조창근 3만 강봉남, 강석현, 김경민, 김동원, 김방룡, 김영환, 김윤정, 도은영, 문준호, 박두석, 박상진, 박신현, 박영주, 박혜경, 서성록, 양성만, 오의석, 우병훈, 이대희, 이은실, 이정주, 임희옥, 장수영, 최용준, 추태화, 한인관, 황의서, 황정진 5만 김민철, 김성락, 김시호, 박문식, 서진희, 손봉호, 신국원, 윤석찬, 정은애, 정희영, 조성태, 채기현,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6만 김지원 7만 윤동수 8만8백 신효영 9만 김정임 10만 김미영, 김의원, 박상은, 송인규, 양인평, 윤원철, 전광식, 최태연 12만 강성준 13만 조대현 21만 정영록 30만 김승욱

계 6,659,300원

기관후원

5만 개봉교회, 대구서교회, 새길침례교회, 새언약교회, 성덕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0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부천참빛교회, 산정현교회, 상록회계법인, 새로나교회,
성덕교회, 예심교회, 자운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20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계 2,300,000원

『월드뷰』는 후원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월드뷰』가 여러분 삶 속에 동행할 수 있도록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맹회)

※회원 여러분의 귀한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3년 1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900,000	인건비	일반급여	3,400,000
	임원회비	620,000		기타급여	1,172,000
	일반회비	4,252,500		소계	4,572,000
	기관후원금	2,300,000	경상비	사무실관리비	437,950
	기타후원금	70,800		통신비	198,870
	월보구독료	596,000		우편료	287,810
	CTC후원금	220,000		소모품비	111,240
		컴퓨터		198,000	
		식비		482,000	
		복리후생비		850,980	
		회의비		1,428,110	
		회계용역비		330,000	
		기타		554,630	
	소계	8,999,300	소계	4,879,590	
			출판(회지)	발송비	200,000
				소계	200,000
기타수입	기타수입	387,640	기타지출	세금 및 기타	102,170
	소계	387,640		소계	102,170
미디어 아카데미	미디어일반등록	630,000	미디어 아카데미	미디어강사료	1,650,000
				미디어행사준비	1,831,660
				미디어기타	78,500
	소계	630,000		소계	3,560,160
세계관 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0	세계관 아카데미	세계관행사준비	0
	소계	0		소계	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학회	학술지인쇄비	2,860,000
	학술지심사비	70,000		학술지발송비	548,100
	학술지게재료	652,500		학술지심사료	1,130,000
	저작권료	0		학회기타	190,200
	소계	7,404,870		소계	4,728,300
당월 수입액	10,839,440	당월 지출액	18,042,220		
전월 이월액	51,553,635	차월 이월액	44,350,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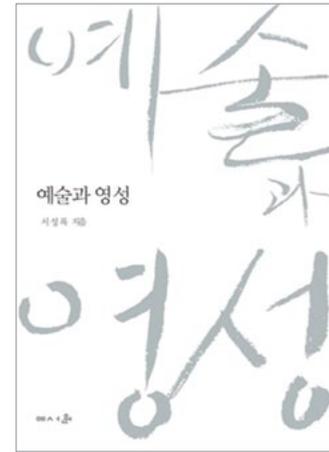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3년 1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연광고비	55,000,000	인건비	직원급여	1,600,000
	연광고비	1,550,000		기타급여	300,000
				소계	1,900,000
광고수입			제작비	교정 및 디자인비	1,150,000
				인쇄비	300,000
				기타제작비	2,260,720
				소계	3,710,720
				발송비	DM발송비
	소계	2,100,000	소계	347,180	
기타수입	기타수입	161,140	경상비	복리후생비	592,910
				식비	32,500
				회의비	220,000
				소계	845,410
				기타	부가가치세
			광고수수료		2,750,000
			세금		301,300
			기타		36,500
		소계	161,140		소계
	당월 수입액	56,711,140	당월 지출액	14,290,560	
전월 이월액	5,974,010	차월 이월액	48,394,590		

※(주)세상바로보기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보고합니다.

WORLDVIEW NEWS



[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가 5월 24일(토) 고신대학교 "소통, 화해, 공존"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주제 소통, 화해, 공존
- 일시 2014. 5. 24(토) ■ 장소 고신대학교
- 논문발표신청접수 마감 4/25(금), 제출마감일 : 5/7(수)
- 발표분과 경제경영, 교육, 문화예술, 법학, 철학, 역사, 상담심리, 사회복지, 의료보건, 융합, 기독교세계관 등
- 대학원생 논문발표는 오전에 진행되며 발표하는 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심사, 선정하여 소정의 상금과 기독교청년우수논문상을 수여합니다.
- 문의 02-754-8004 (담당: 신효영 간사)

<신앙과 학문> 2014년 1호 투고접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신앙과 학문>은 2014년 1호의 투고접수를 받습니다. 학문에 관심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홈페이지에서 직접 투고하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신앙과 학문>을 세트 판매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기 관은 사무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19권 1호 발행일 3월 31일
- 19권 2호 발행일 6월 30일
- 19권 3호 발행일 9월 30일
- 19권 4호 발행일 12월 31일

- 투고 www.worldview.or.kr (홈페이지 직접 접수)
- 편집위원장 메일 faith.scholarship@gmail.com
- 문의 02-3272-4967(학회)

[회원소식] 예술과 영성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본지에서 연재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서성록 교수(안동대 미술학과)의 미술 칼럼이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예술의 현장에서 생명과 희망의 나무를 심기 위해 힘쓰는 한국 기독교 작가와 그 작품을 일상의 성화, 생명의 강가, 영원한 소망, 충만한 사랑, 상징과 은유, 마음의 삶의 여섯 파트로 구성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확장하고자 지난 11월 발행한 <예술과 영성(예서원)>을 소개합니다.

[모집] 대학로에 선 기독교 대학원생

기독교대학원생 모임이 매월 마지막째 주 금요일 오후 3시 대학로에서 가까운 성균관대학교 호암관에서 있습니다. 동역회의 교수님들을 멘토삼아 함께 담소를 나누고 연구를 준비할 모임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 일시 2014.3.28.(금) 오후 3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 호암관
- 문의 gihakyun@daum.net / 02-754-8004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이자 감사이신 김승태(예영커뮤니케이션 대표)님께서 지난 2월 22일 토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간 동역해주신 (故)김승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매장을 안돼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한 부부가 이스라엘로 여행을 갔다.
 그런데 도착 후 다음 날 그만 남편이 죽고 말았다.
 현지 장의사가 이스라엘 매장을 권유했다.
 한국으로 시신을 옮기려면 2만 불이나 들지만
 현지에서 매장하면 5백 불이면 충분하고, 게다가 성지에 묻히니 얼마나 좋으냐고.

부인이 한 참 고민하더니 아무래도 한국 땅에 묻어야겠다고 했다.
 그 이유를 물은 즉, 부인 왈:

“옛날에 예수님이란 남자가 이 땅에 묻혔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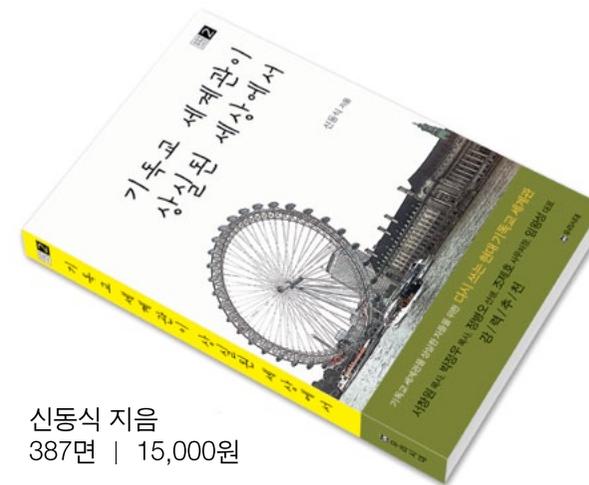
그리스도인의 정치 색깔에 이은 성경적 세계관 시리즈 그 두번째

기독교 세계관이 상실된 세상에서

서창원목사, 박정우목사, 정병오선생, 조세호사무처장, 임왕성대표 추천!

기독교는 삶이다. 성경적인 삶이다.

기독교 세계관을 상실한 세대를 위한 다시쓰는 현대 기독교 세계관



신동식 지음
 387면 | 15,000원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인간의 삶의 모든 목적이 그분의 영광을 위한다는 기본이 깔려있는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이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절대 진리를 배척하는 시대이기에 더욱 성경의 권위를 강조해야 한다. 그 모든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저자의 책을 그래서 추천한다. 사라, 읽으라, 새기라 그리고 살라! 여기까지 이끌림 받는 생명력을 맛보라고 감히 권하고 싶다.”

—서창원 목사(개혁주의설교연구원장)

(전국 주요서점 및 인터넷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초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질병부담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망 질병률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고혈압, 흡연에 이어 3위로 공기오염이 꼽혔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이제 기호제품이 아닌 필수품입니다.



항균성 천연물, 고삼을 이용한
나노 특허필터 개발



이리오스 힐링목재공기청정기는 실내공기를 위협하는 **5종 악**을 제거합니다.

냄새 담배연기냄새를 비롯한 각종냄새

먼지 50~70 μ m 머리카락, 10 μ m 황사, 2.5 μ m초미세먼지

세균 폼알데하이드(CH₂O), 폐렴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대장균, 악성세균MRSA, 녹농균, 암모니아, 톨루엔

곰팡이 집안을 부식시키고 음식을 상하게 하는 곰팡이

진드기 아토피 및 알레르기성 질환의 주요 원인



Object type Airpurifier
500*395*518(mm)
30평형



NC Pattern Airpurifier
450*450*630(mm)
30평형



Furniture type Airpurifier
510*510*682(mm)
30평형